

# 5 관광개발 및 문화융성



# 관광개발 및 문화 융성

## 전라남도의 문화와 관광 진흥을 위한 노력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 말한다. 우리 정부도 이에 걸맞게 문화융성의 가치를 내걸고 있다. 문화는 산업화로 치닫던 인간소외의 굴레에서 건강하고 감성적인 삶의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우리나라 문화의 핵심적인 요소는 호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나 전남은 오랜 전통의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풍광까지도 그렇다.

오래 전 한 프랑스 여성 인류학자가 한국에 5년을 머물며 한국의 문화를 연구했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인류학자는 5년 가운데 3년은 전남을 돌아다니며 연구했다. 이유인즉, 한국 문화가 전남 지역에 녹아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문화를 연구했다는 것이다. 외국 전문학자의 눈에도 전남의 문화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정도로 연구 가치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를 다른 시각에서 보면 전남의 문화적 자원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다.

전남의 문화와 관광을 이끌 자원개발 정책을 구상했다. 전남의 문화와 관광을 특화시키고 브랜드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전라남도는 지난 10년의 도정에서 이를 정책으로 수립하여 추진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들도 있다.

전라남도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차별화된 문화와 관광 정책은 전남의 천혜자원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천혜자원의 하나로 '섬'을 지목했다. 전남이 갖고 있는 '섬'이라는 천혜자원은 오랜 동안 말 그대로 미개척지로 남아 있었다.





그동안의 섬은 그저 어업이나 하며 태풍에 거슬리지 않고 살아가는 도서벽지에 불과했다. 때문에 교통도 불편하고 통신도 잘 되지 않고 식수도 부족한 등 주거환경이 썩 좋지 않았다.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숙박 시설이나 레저 시설 등도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주 5일제 근무로 인한 여가확대 등으로 국민의 관광욕구가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관광객들은 기존의 알려진 관광지보다 새로운 체험을 위해 섬을 찾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고속도로의 신설과 서울-목포간 KTX 개통, 육지와 섬, 섬과 섬과의 연륙, 연도 개설 등이 관광욕구를 자극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이에 힘입어 전라남도도 문화와 관광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 섬 관광 사업은 전남의 브랜드 제고

전남은 2,219개의 섬과 6,475km가 넘는 리아스식 해안선을 자랑한다. 전국 섬의 65%와 해안선의 46%를 넘는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보다도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자원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갯벌은 게르마늄이 풍부한 세계 5대 갯벌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은 그 갯벌 면적만 1,037km<sup>2</sup>로 전국의 42%에 달한다. 바다 면적은 26,450km<sup>2</sup>로 전국의 37%에 이른다.

전남은 눈을 뜨기 시작했다. 이러한 천혜자원을 전남의 브랜드로 내세우고 문화와 관광을 촉진할 스토리로 만들고 상품화시킨다면 전남이 세계적인 관광특구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을 했다. 그래서 전라남도도 섬을 상품화하고, 관광자원화하는 위한 방안을 구상했다. 문화와 관광 정책 분야에 있어서 섬개발에 힘을 기울였다. 박준영 지사를 비롯하여 많은 정책 실무자들이 섬개발 계획을 세울 때마다 헬기를 타고 직접 현장을 둘러보았다. 지도만 놓고 보는 것과 현장을 보는 것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몇 가지 섬개발 아이디어들이 논의됐다.

전라남도도 2005년에 갤럭시 아일랜드 프로젝트(Galaxy Islands Project)를 수립했다. 10년에 걸쳐 1조 1,999억원(민자 포함)을 투입하여 서남해 가운데 40여개의 섬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들 섬을 크게 4개의 지구로 구분하고 동물, 휴양, 명상, 전망, 건강, 가족, 생태 등 15개의 테마로

특성화시키는 친환경 테마 섬을 개발한다는 구상이었다.

전남에 속한 2,219개의 섬 가운데 유인도는 296개이고 나머지 1,923개는 무인도이다. 유인도는 제대로 된 민박시설과 레저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테마 섬으로 개발했다. 그러나 무인도는 이런 환경이 전혀 안 돼 있었다.

우선 유인도를 중심으로 한 40여개의 섬은 신안 영광 권역에 자은도와 도초도 등 15개의 섬, 진도 해남 권역에 관매도와 접도 등 8개의 섬, 완도 권역에는 보길도와 노화도 등 6개의 섬, 여수 고흥 권역에는 백도와 거문도 등 11개의 섬으로 구분했다. 각 섬들은 환경과 주변 경관에 어울리도록 테마섬으로 정했다.

예를 들면 도초도는 사파리 아일랜드, 안좌도는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노대도는 음악의 섬, 나배도는 전망의 섬, 접도는 명상의 섬, 보길도는 건강의 섬, 사도는 생태의 섬, 백야도는 가족의 섬, 시호도는 원시체험의 섬, 작독도는 꽃과 나비의 섬 등으로 정했다.

그런데 몇 개의 섬 이름은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 원시의 섬이라고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시멘트로 오두막을 짓는 곳이 있었다. 테마와 어울리지 않은 시설들은 과감히 수정하였다.

전라남도도 섬개발의 핵심을 무인도에 두었다. 해안을 잘 정비하고 숙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면 단체관광객이나 가족단위 관광객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는 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무인도 항로는 도나 시·군에서 정기적인 순환선을 운항하면 될 일이었다.

전라남도도 이렇게 섬들의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테마로 조성할 경우 관광객들의 섬 관광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남은 동북아시아에서 보면 해양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중국 관광객이 전남에 머물고 싶어도 시설부족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 지적되었다. 그러나 해양관광 복합도시 솔라시도(Solar+sea+city) 개발 계획으로 중국관광객 유입은 물론, 세계적 관광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섬에 이름 지어 생명력을 갖게 해

이러한 섬 개발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섬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섬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필요한 곳은 민자 개발을 한다지만 도나 시·군에서

땅을 매입해야 할 곳도 생겼다. 이런 일은 일단 구상단계에서는 동의한다지만 실행단계에서는 사업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곳도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현재는 6개 시군에 19개 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섬에 2014년까지 1,086억원이 투자되어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섬의 관광자원화를 벌이고 있다.

가장 활발하게 특화 섬 개발을 벌이고 있는 곳 중의 하나가 도초도이다. 도초도는 하늘에서 보면 양옆이 높고 가운데 움푹 들어간 모양이다. 전라남도는 도초도가 지형상 동물의 섬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곳엔 여느섬과 달리 물자원이 풍부하여 동물들이 살기에도 적합한 지역이다. 그래서 야생동물의 섬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반영했다.

외부 용역을 통한 전문가들의 검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도초면 발매리 일원 118만7천㎡에 2020년까지 사파리 아일랜드 사업을 통해 사파리, 플라워링, 테마숙박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산양이나 여우같은 멸종 위기종 야생동물을 복원하는 동물의 섬으로 기획했다. 그러나 현재는 섬의 고립성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물을 소재로 차량이나 보트, 도보로 관람하고 숙박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2013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유망 관광개발 투자유치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현재까지 토지매입은 약 30% 가량 마쳤다. 다만 도초도가 뱃길로 2시간 가까이 소요 되고 사파리 운영비, 섬 생태계 훼손 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도초도 자체가 워낙 좋은 섬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훼손하지 않고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사파리 아일랜드 사업은 이제 시작단계이다. 대규모 민간자본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 등 외국자본 유치도 추진해야 하고 전남도와 각 시군의 입장에서도 주민과의 갈등발생을 사전에 대비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섬개발에 있어서 사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섬의 이름을 짓는 일이다. 유인도의 경우는 섬의 이름이 있지만 무인도의 상당수는 섬 이름이 아직 없는 경우가 많다. 이름이 있는 섬도 잘 알려지지 않고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아 섬에 관련된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현재 이름이 고시되지 않은 섬 54개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지도 등에 표시하고 인터넷(internet)을 통해 섬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가 있어야겠다.

그리고 이름도 없고 미고시된 섬 378개는 지역 주민들이나 관련된 이들로부터 섬 이름을 짓도록 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2014년 말까지 벌이는 이 사업은 주변 조사를 통해 주민들 사이에 유래가 있는 섬 이름을 가능한 우선적으로 붙이고, 이름이 없는 섬에 대해서는 섬의 특색을 잘 파악하여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줄 필요가 있다. 이름이 있어야 섬이 생명력을 갖고 사람들도 섬에 대한 친숙함을 갖는다. 또 각종 지도 등에 섬을 표기하여 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육지와 섬을 연결시키는 다리 공사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란 것이다. 일명 다이아몬드 제도라고 할 정도로 전남의 큰 섬은 모두 다리로 연결하고 있다. 현재 연륙연도가 무려 105개에 이른다. 육지와 가까운 섬들은 다 연결되었고 섬과 섬 사이의 다리도 계속 확장되고 있다. 이들 섬도 일정한 지역까지만 자동차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도보나 섬내에서만 순환하는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도록 하는 문제를 검토 중에 있다.

## 생태관광의 보고로 떠오른 갯벌

섬과 연관된 사업으로는 육지와 해안을 연계하여 천혜의 자원이 있는 갯벌 개발을 들 수 있다. 그동안은 갯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없다보니 단순히 낙지나 바지락이 서식하는 정도로만 인식되어 왔다. 이런 갯벌이 이제는 천혜자원의 보고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갯벌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체험형 관광사업이다. 갯벌에 서식하고 있는 수많은 어패류 등을 낚 수 있고, 갯벌 머드팩 효과도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갯벌 주위에는 갈대숲이 조성된 경우가 많아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다.

갯벌은 육상과 해상의 생태계가 만나는 점이지대(漸移地帶)이다. 이곳은 육지와 해양의 완충지대로서 직접적인 충격을 완화하고 조절하며 이 두 개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이곳은 육상과 해양의 수많은 동물들과 조류, 해양생물들의 서식지이다. 어촌 사람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어패류를 채취하며 살아간다.

전남의 갯벌은 우리나라 전체 갯벌의 43%라 했다. 이 중 신안과 무안, 영광 등 3개 군 지역에 있는 갯벌면적만 하더라도 전남이 차지한 면적의 약

61%이다. 특히 50%의 갯벌은 섬 갯벌로 이루어져 있다보니 갯벌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섬 개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개발도 가능하다. 이러한 갯벌의 집중지역을 전남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새로운 생태관광의 동력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 지정된 람사습지와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과 잘 연계한다면 전남갯벌공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운영하는 방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특히 신안갯벌도립공원은 주변의 엘도라도리조트와 같은 휴양처와 연계하고, 무안갯벌도립공원은 무안갯벌생태센터와 야외학습장, 오토캠핑장 등의 시설을 잘 활용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충분히 부상시킬 수 있다고 전라남도는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전남은 다도해라고 부를 정도로 인근 바다에 섬들이 점점이 박혀 있는 듯하여 풍광이 뛰어나다. 때문에 일반 여객선 관광이나 요트관광을 하기에 매우 좋고 갯벌생태계에서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근원들이 있어 자연치유에도 큰 도움이 된다. 전라남도는 이런 사업들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 요트관광의 시대가 다가온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가장 먼저 찾는 관광체험은 레저 관광이다.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해외관광을 나가 느껴본 것 중의 하나가 캠핑카라든가 항구에 정박한 수많은 요트를 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저렇게 해볼까!”였다는 이야기가 많다. 그런데 벌써 우리도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 내륙에서 하는 골프 다음으로 바다에서는 해양레저가 취미 분야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의 웬만한 관광지마다 오토캠핑장이 있는가하면 요트를 갖고 인근 해안을 둘러보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해양레저의 꽃은 당연히 요트관광이다.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마리나와 요트산업에 눈을 돌려 지역경제 활성화의 디딤돌로 삼았다. 우리나라도 2010년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수립을 기점으로 전남의 7개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46개를 마리나항으로 지정했다. 목표는 레포츠형으로, 여수 소호는 거점형으로 운영 중에 있다. 나머지 5곳은 개발계획 중이다. 2011년에



발표된 마리나산업 육성비전에 따르면 그 규모가 2015년까지 3배, 2020년까지 10배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많은 섬과 해안선이 있어 요트를 타기엔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남은 대불산단지에는 16개 요트 관련 업체가 있고 일부 조선업체에서 장비부문 업종전환도 가능해 요트엔진과 기자재 등 연관산업을 동반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환경에 힘입어 2011년 9월에 전국 최초로 ‘전남 요트마린 실크로드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모든 것은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얼마나 빠르게 실천하는가에 따라 선점효과와 브랜드 효과가 있다. 특히 중국의 고소득층이 마리나의 주 수요층으로 급부상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중간 지점인 우리 전남은 경유지로서 충분한 역할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요트관광 대중화의 기치를 내걸고 있다.

전라남도는 전남을 요트마린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도내의 54개 유희항만을 대상으로 수심과 정온도, 수역시설, 배후부지, 주변 관광자원, 접근성, 자연조건 등 13개 항목을 살폈다. 그렇게 해서 평가해보니 목포항을 허브항으로 한 아일랜드로드, 완도항을 허브항으로 한 장보고로드, 여수신항을 허브항으로 한 엑스포로드 등 3개 로드와 목포내항을 출발하여 영암 나불도를 거쳐 영산포까지 올라가는 1개 로드 등 모두 4개의 요트로드를 수립할 수 있었다.

이들 요트로드는 장기 계획으로 추진중이다. 2017년까지 단기개발, 2021년까지 중기개발, 2025년까지 장기개발을 거쳐 4개의 허브항구와 24개의 경유항구 등 2,215척의 계류규모를 갖출 예정이다.

## 해양레포츠로 다도해 풍광 세계에 알려

이러한 요트로드와 함께 관심을 끌만한 해양관광사업이 있다. 바로 국제해양레저스포츠대회와 국제크루즈이다. 전라남도는 일찌감치 해양레저스포츠로 요트대회를 유치하는 데 눈을 뗐다. 국제요트대회, 코리아오픈 호버크래프트 대회, 국제파워보트대회 등 국제적인 대회를 열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2010년부터 서로 번갈아 국제요트

대회를 개최하여 해양레포츠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는 서남해안 다도해의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다도해 국제요트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지역의 해양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전남의 다도해와 리아스식 해안의 풍광이 소개되면서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국제크루즈를 유치하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크루즈 여행의 백미는 섬 관광이다. 앞서 설명한 섬개발이 정착될 경우 국제크루즈를 유치하는 데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전라남도도는 판단하고 있다. 전남은 섬과 바다, 깨끗한 자연환경, 친환경 먹을거리, 유구한 역사문화유산 등이 풍부하여 ‘한국 속의 또 다른 한국’을 느끼기에 충분한 곳이다.

그동안 전남은 저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급급했다. 그러나 이제는 일본은 물론 중국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고급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러한 전략 수정을 통해 중국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여 직접 전남으로 오는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섬을 중심으로 한 고급 관광지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이를 위해 전남지역의 입국 관문인 무안국제공항과 목포와 여수의 크루즈 터미널을 활용한 인바운드 전세기와 국제 크루즈선을 통해 대규모 해외관광객 유치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미 2004년 일본 퍼시픽 비너스가 여수항에 최초로 정박한 경험이 있다. 이를 계기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중에는 여수크루즈전용부두항이 개항되었고, 2013년에는 광양항에 대형 크루즈선인 로얄캐리비안이 정박하기도 했다. 로얄캐리비안은 2014년만 하더라도 5번 입항하기도 하였다.

또한 경비행기를 이용한 관광도 가능해졌다. 우선 고속철도가 서울에서 목포까지 2시간 정도 걸린다면 쉽게 접근성이 높아지고 흑산도에 추진중인 경비행장이 들어서면 관광객의 섬관광은 더욱 편리해진다. 목포항에서 흑산도항까지 130km로 쾌속선이 2시간여 걸리는 데 경비행기는 무안 공항에서 흑산도 까지도 바로 연결된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슬로시티

전남은 풍광이 뛰어난 바다와 섬, 아름다운 해안 등 자랑거리가 풍부하다. 그리고 여기에 어울리는 공간으로 슬로시티와 생태공원은 전남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여기에 어울리는 공간은 슬로시티와 생태공원을 들 수 있다. 최근 환경문제가 지구촌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개발보다는 고유한 자연환경을 지키며 주변의 환경을 생태학적으로 조성하고 이를 알리는 역할도 매우 중요해졌다.

슬로시티운동은 1999년 이탈리아의 그레베 인 키안티에서 처음 시작된 느린 마을만들기 운동이다.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자연환경과 전통을 지키고 보존하는 지역살리기운동을 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민간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해 2007년 담양, 보성, 장흥, 신안, 완도지역에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슬로시티 국제연맹은 24개 평가항목에 따라 담양 창평, 장흥 유치와 장평, 완도 청산도, 신안 증도 등 4개 지역을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로 지정했다. 슬로시티 지정 이후 관광객 수가 평균 6배나 증가할만큼 지역 소득 증대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요한다.

전남이 청정한 환경지역이라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또다른 여건 중의 하나가 생태공원이다. 대표적인 생태도시 함평을 찾는 자연생태관광객도 꽤 늘어나고 있다. 나비축제로 명성이 알려진 점도 있지만 함평은 대표적인 생태도시이다. 나비축제로 명성이 알려진 점도 있지만 함평은 ‘뱀’을 주제로 한 양서 파충류 생태공원을 조성했다. 지난 2008년에 시작한 이 사업은 2014년 10월 국향대축제 때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양서파충류생태공원에는 국내외 다양한 뱀 89종에 7백여 마리가 전시된다. 이는 나비엑스포공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장기적으로는 뱀독을 활용한 신약개발의 기반을 마련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개구리 등 멸종 위기종을 보존하려는 생태공원도 조성했다. 지난 2012년 생태조사 결과, 가마골 생태공원과 추월산 등 담양호권에 1급수에만 산다는 무당개구리와 도롱뇽, 참개구리 등이 살고 있었다. 또 양서류 포식자인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등 각종 철새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를 근거로 아열대와 온대기후가 공존하고 이러한 생물의 보전을 통해 생태도시 담양을 홍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개구리 생태공원을 조성키로 했으나 기본적 환경영향평가는 물론이고 살아있는 생물의 서식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 관련된 모든 기관이 논의하여 대상지 선정에 신중한 결정을 하느라 2년여의 시간을 보냈지만, 최종적으로 2014년 1월 담양 운교리 홍수조절 습지가 일원으로 선정했다.

## 건강을 위한 자연치유, 해도림(海島林)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자연치유가 붐을 이루고 있다. 전남은 공기의 비타민이라고 하는 피톤치드와 산소음이온을 통한 풍부한 자연치유 공간을 가지고 있다. 피톤치드 하면 장성 측령산과 장흥 우드랜드가 유명하다. 뿐만아니라 전남의 해안과 섬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음이온이 풍부하고 피톤치드의 주성분인 아파피넨이 다른 지역보다 1.5배나 많다.

현재도 이렇게 좋은데 섬에 산소를 뿜어내는 나무 수종을 많이 심어 산소숲을 조성하면 더할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더불어 해변과 섬의 생태자원을 활용한다면 자연치유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기에 충분한 지역이 될 것으로 전라남도도 판단하고 있다. 바닷가나 섬을 중심으로 형성된 숲에서는 풍부한 피톤치드가 나오고 음이온과 함께 하면서 치유공간으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가 이러한 자연치유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해도림(海島林) 사업이다. 해도림 사업은 생태계의 보고 갯벌이 있는 해변(海), 해변과 숲 등 훼손되지 않은 자연의 고유한 환경을 가진 섬(島), 그리고 공기를 정화하는 산소탱크 역할을 하는 숲(林) 등을 의미한다. 이는 자연치유를 하는 환경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모든 생명체가 정상상태를 유지하려는 항상성이나 면역력을 갖고 있는 데 이를 자연치유력이라 한다. 전남은 하늘이 내려준 엄청난 자원, 즉 자연치유력을 가진 땅이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남의 섬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의 질을 조사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산소음이온 측정값이 나왔다. 이를 기반으로 특허청에 해도림 CI를 제작, 출원 중이고 ‘자연치유의 땅 전남 해도림’ 특허도 받을 예정이다.

사파리 아일랜드등을 활용한 해양관광과 해도림을 통한 자연치유, 다양한 요트레포츠 등은 전남이 은퇴자들의 건강을 챙겨주는 지역으로서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 토요일이면 그림 사고 공연 보고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전남은 중요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다. 고전, 현대 예술의 생산지이다. 수많은 문인과 예술인들을 배출해왔다. 이같은 여건을 기반으로 매주 토요일 그림경매와 함께 전남도립국악단의 토요공연을 펼치고 있다.

진도의 토요 그림경매는 우여곡절 끝에 정착되었다. 처음에는 관련 부서 내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다. 경매를 서울에서 해야지 지역에서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보면 맞는 말이다. 역시나 처음 몇 달간은 그림이 한 점도 팔리지 않았다. 전남도내의 초대작가들은 물론이고 젊은 작가들까지 작품을 내놨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작가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원했던 행사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이렇게 직접 작품을 사고파는 일을 통해 작가를 현실적으로 지원한다면 작가의 가치도 높아지는 일석삼조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담당할 기관으로 2005년 6월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남도예술은행을 설립했다. 전남도내에 거주하는 젊은 예술작가들과 예술적 역량이 뛰어난 우수한 전업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는 일을 담당한다. 예술은행은 전업 작가들이 안심하고 창조적인 작품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맡고 있다. 현재까지 남도예술은행 사업으로 200여명의 작가로부터 3,300여점의 작품을 구입했다. 이렇게 구입한 작품들은 남도화의 시조라 할 수 있는 윤림산방이 있는 곳에서 토요경매를 통해 판매하고, 판매수익금 전액을 다시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하는 데 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3년 국정감사 에서는 ‘관광객 유치 활성화 우수 시책’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토요경매는 관광객의 인기를 끌면서 벌써 400회 넘게 실시했고, 앞으로도 경영개선과 효율적인 작품 유통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가하면 도립국악단의 토요공연은 국악대중화의 길에 앞장서고 있다. 전남도립국악단은 1986년에 창단되었다.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공연예술 단체로 지난 2006년부터 남도예술의 도시 목포에서 매 주말마다 상설 공연되고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2011년 고 김대중 대통령의 삶을 조명한 국악뮤지컬 ‘인동초처럼 살리라’, 2012년 전통 판소리에 오페라적인 요소를 가미한 판페라 공연 ‘이순신’, 2013년 공연하여 큰 호응을 얻은 창극 ‘홍길동’



등을 선보이고 있다.

아울러 토요공연은 트렌드에 맞는 공연 기획에도 애쓰고 있다. 전남도는 2012년에는 국악인 오정해씨와 지역음악가들을 초청한 ‘음악여행’도 했고, 2013년에는 다양한 장르의 아리랑을 선보였다. 토요공연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 여행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남도관광의 기본 코스로 하여 방문토록 하고 있다.

##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뜨고 있다

전남도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문화자원과 유적지 등이 있다. 최근에는 국가 문화재 지정도 가치가 있지만 유네스코유산으로 등재되어 세계적인 이름을 올려 이를 브랜드화 하는 게 더욱 효과적이다.

유네스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목적은 어느 특정 국가나 민족의 유산을 떠나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그만큼 문화적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자긍심을 갖게 되고 현 상태로 보존하여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충분한 홍보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유네스코유산은 크게 세계유산과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등으로 구분한다.

우선 세계유산은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 등으로 분류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탁월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유산을 말한다. 2013년 기준 전 세계 160여 개국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유산은 981점이다. 우리나라는 10건이 기록되어 있다.

전남의 경우 화순 고인돌유적이 고창과 강화의 고인돌과 함께 2000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화순 고인돌유적은 무려 500여기의 고인돌이 군집상태로 있으며 보존상태도 좋은 편이다. 또 고인돌의 채석장도 발견되어 고인돌의 축조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들 고인돌은 거대한 석조로 만들어진 2,000~3,000년 전의 무덤과 장례의식 기념물로서 당시의 기술과 사회현상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도 추가로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 잠재목록으로 추진 중인 것은 신안과 영광의 염전,

강진 도요지, 낙안읍성, 장성 필암서원, 해남 대흥사와 순천 선암사, 신안의 갯벌, 남해안 일대의 공룡화석지 등 모두 7건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매년 조사연구와 학술대회 등을 통해 그 가치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등재 준비에 힘쓰고 있다. 또 세계유산으로 화순 운주사와 무등산 주상절리대, 지리산 일원도 잠재목록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 무형유산과 기록유산의 새로운 발견

그런가하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은 2012년 기준으로 전 세계 88개국 257건이 등재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5건이 등재되어 있는 데 전남과 관련성이 있는 것은 강강술래, 판소리, 아리랑을 들 수 있다.

강강술래는 노래와 음악, 무용이 삼위일체의 형태로 이루어진 원시종합 예술이다. 대개 대보름이나 단오, 추석 때면 동네마다 모닥불을 피우고 손에 손을 잡고 빙빙 돌며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른다. 흥겨운 놀이이면서 의례적 성격이 강한 세시풍습으로 1966년에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회의에서 진도 강강술래와 해남 우수영 강강술래가 목록에 올랐다.

판소리는 전라도를 중심으로 충청도, 경기도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전승되어 지역적 특징에 따른 소리제를 형성한다. 전라도 동북지역의 소리제는 동편제(東便制), 전라도 서남지역의 소리제는 서편제(西便制), 경기도와 충청도의 소리제는 중고제(中古制)라 한다. 판소리는 우리 역사와 희로애락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독창성과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2003년 유네스코 제2차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결장’으로 선정되었다.

아리랑은 전국 곳곳에서 독특하게 불린다. 광주에서는 세계아리랑축제를 선점하여 벌이고 있다. 아리랑은 대표적인 한국의 민요이며 많은 사람들이 아리랑을 알고, 즐겨 부른다. 아리랑은 한 곡의 노래가 아니다.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양한 리듬과 선율, 사설이 발달하여 전승되고 있다. 현재 전승되는 아리랑의 종류와 곡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진도 아리랑을 비롯하여 약 60여 종 3천600여 수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리랑은 2012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7차 회의에서 등재가

확정됐다.

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인류 모두의 소유물인 기록유산이 미래세대에 전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 세계 102개국 및 5개 기구 300건이 등재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난중일기와 광주의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을 포함하여 10개가 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는 임진왜란 이후 7년 동안의 일을 정리해 놓은 일기장이다. 2013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평범한 개인의 사소한 일상도 사회와 맞물려 돌아가는데, 장군으로서 적어놓은 일기장은 업무 일지도 될 수 있고, 당시의 해군 전략이나 법률체제(형법, 군법), 군사체계를 살펴볼 수 있는 역사서도 될 수 있다. 전남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1597년의 울돌목대첩이다. 백의종군 중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임명되어 장흥 회령포에서 13척을 겨우 모아 해남 화원반도와 진도 사이의 해협이 있는 울돌목에서 일본 수군 133척을 대파한 세계해전사의 전무후무한 기록을 갖고 있다.

## 의향에서 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전남은 불의에 맞선 역사를 자랑으로 삼고 있다. 의향의 삼별초의 항몽유적지와 동학농민혁명의 장흥 석대들전적지, 그리고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들 수 있다. 항몽유적지로는 진도의 용장성과 남도진성, 장흥 석대들전적지는 큰석대와 작은석대 등 두 곳이 있다.

진도의 용장성은 1270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여몽연합군에 맞서 싸운 삼별초 정부의 최초 거점이다. 1964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126호로 지정되었다. 삼별초의 대몽항쟁은 몽고에 항복한 왕실에 대한 불만과 100여년의 무인정권의 종언이라는 역사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배중손과 노영희 등이 최씨 정권의 전위부대였던 삼별초군을 규합하여 왕족인 승화후손을 왕으로 옹립한 후 배 1천여 척을 이끌고 진도로 남하하여 진도에 새로운 왕궁을 조성한 것이다.

또 남도진성은 배중손이 대몽항쟁의 근거지로 삼기 위해 축조한 석성으로 알려져 있다. 진도에 이미 백제시대 때 3개의 고을이 존재하였고 그 때도 석성이 일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도포에 수군만호가 처음 생긴 것은

세종 20년이다. 이를 추정하면 현존하는 성은 세종 20년 이후의 것으로 유추된다.

용장성은 1985년 이후, 진도진성은 1999년 이후 처음 지표조사가 시작되어 일부 복원공사가 진행 중이다. 발굴조사와 복원 추진으로 이들 성의 주변을 정비하고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 인근에는 2005년에 발견된 선소(船所) 유적과 사대(射臺) 활터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들에 대한 연계 안내도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선소유적은 불과 4백여m 떨어진 곳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잔존 유구가 확인된 유일한 곳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장흥 석대들전적지는 동학농민혁명 4대 전적지의 하나로 2009년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98호로 지정되었다. 이곳은 동학농민혁명군의 최대, 최후의 격전지이다. 특히 이 전적지는 동학군의 지도부인 전봉준이 체포된 이후 벌어진 항전지로 평가받는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장소이며, 반외세와 반봉건을 지향하는 민족 민주운동을 지향한 역사적인 장소이다. 이외에도 동학농민혁명의 중요한 장소로 장흥 집강소 터를 비롯하여 농민군 훈련장 등 30여개소가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남도의 DNA가 뿌리내리면서 평생 민주와 인권,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을 기념하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이 목포 삼학도에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87년 이후 14회에 걸쳐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추천되었다가 2000년에 마침내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되었다. 전남의 이러한 명소들도 역사 유적지로서 관광지로 단장되었다.

# 1 관광개발 및 문화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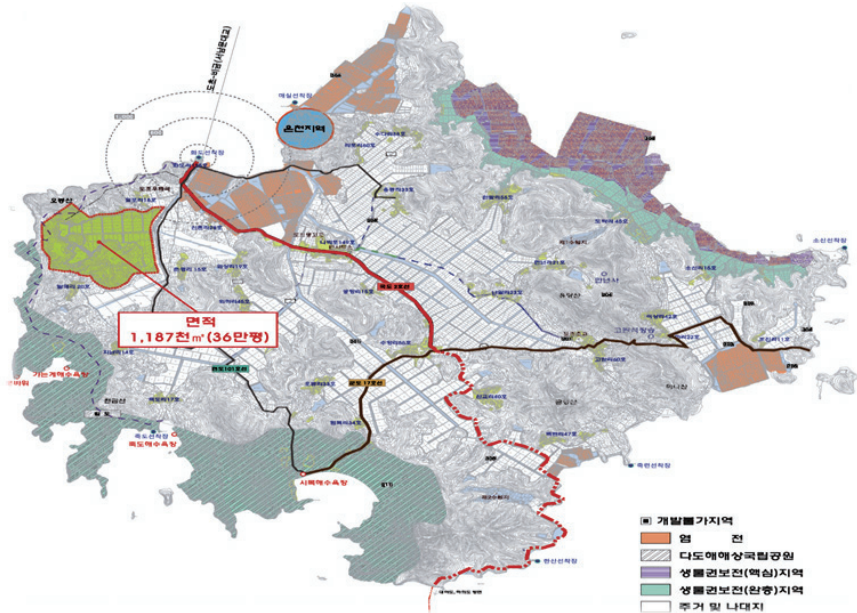
## 1. 사파리 아일랜드 개발

국민소득 증가, 주 5일제 근무로 인한 여가확대에 따라 국민 관광욕구가 다양해지면서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체험을 위해 섬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거기에 고속철도 개통, 연륙·연도교 개설 등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일반인들도 섬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면서 섬 관광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섬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광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전남은 2,219개의 섬과 6,475km 길이의 해안선, 세계 5대 갯벌 등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섬지역의 고립성, 환해성, 격절성 등 타지역 관광지와 차별화된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내륙 관광지에서는 맛볼 수 없는 특이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전라남도는 2005년 ‘전남 섬 관광자원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특화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화섬 개발 중 대표 프로젝트 중 하나가 사파리 아일랜드 개발 사업이다. 사파리 아일랜드 사업은 도초면 발매리 일원 1,187천㎡(36만평)에 1,324억원(국비 213, 지방비 297, 민자 814)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20년까지 사파리, 체험놀이시설, 화조원 등 테마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파리 아일랜드는 당초 산양·여우같은 멸종위기종 야생동물을 복원하는 ‘동물의 섬’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획되었다. 이후 섬의 고립성·격절성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물을 소재로 사파리를 조성하여 차량·보트·도보로 관람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파리 내에 독특한 숙박시설(수상가옥, 황토펀션)을 도입하여 도초도 주변 관광지와 연계시킨 장기여행코스(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여 사파리 아일랜드로 확대·변경되어 추진되고 있다.





개발 위치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주민의 반대와 사업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전남도는 섬자원의 보존·활용, 지역 관광인프라 확대, 지역 이미지 향상, 사업 성공가능성 등을 근거로 적극적인 설득작업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서 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가상승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전남도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토지 선 매입을 추진하는 등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높여나가고 있다('14. 2월 현재 244필지 779천㎡(전체사업대상지의 74%)).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3년 문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2013 유망 관광개발 투자유치 지원 사업' 과 국토교통부 '해안권 투자유치 지원 사업' 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라남도의 비교 우위자원인 해안, 섬을 친환경적 여가휴양형 테마섬으로 지속 개발하고 특화하여 글로벌 관광휴양지대로 조성하기 위한 전라남도의 노력, 섬을 대상으로 한 차별성, 시장성 등이 조금 이나마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파리 아일랜드 개발은 2,44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052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1,922명의 고용유발효과 외에도 관광 환경개선에 따른 관광전남 이미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파리아일랜드 마스터플랜(조감도)

1. 도치열림존
2. 풀라워링
3. 키즈프린슬리
4. 코리아마운틴
5. 씨월드
6. 아일랜드사파리
7. 조지 및 동력발전
8. 숙박시설
9. 전망대
10. 검역소 및 부대시설
11. 주차장

사파리 아일랜드 개발사업은 이제 시작단계이다. 대규모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해 나가야할 주사업자의 발굴, 사업성, 일부지역주민 간의 의견 상충으로 인한 지역갈등 등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씩 해결된다면 미래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써의 활용, 지역 이미지 향상 및 지역주민의 새로운 소득기반 확충이라는 당초의 기대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해도림(海島林)조성사업 추진

### 숲은 인간의 삶과 떼어 수 없다.

숲 1ha는 44명이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해 주는 산소뱅크다. 또 인체에 해로운 먼지, 아황산가스, 질소화합물을 흡수하여 공기를 정화하는 공기정화기다. 숲은 물을 저장했다가 깨끗하게 걸러서, 흘러 보내주고 산사태를 막아 준다. 또 숲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치유하는 기능이 알려지면서 그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전남은 산림, 섬, 해안 지역에 편백, 삼나무, 소나무 뿐 아니라 대나무, 백합나무, 동백, 구실잣밤 등 다양한 수종이 분포하고 있다. 다양한 수종은 여러 종류의 질병치유에 활용이 가능해 숲의 이용가치는 매우 높다.

숲에는 자연치유 성분인 피톤치드(Phytoncide)와 “공기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음이온이 풍부하다. 피톤치드의 주성분인 아파피넨은 국내 타 지역보다 1.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런 우수한 산림, 해변, 섬 생태자원을 활용해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가운데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해도림(海島林)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 주요 산림 지역내 공기 성분을 조사하여 자연치유 조건이 가장 좋은 성분을 활용 특성화하고 차별화된 치유 숲 조성과 전남의 자원인 2,219개의 섬, 6,475km 길이의 해변은 여러 종류의 질병 치료에 활용이 가능한 공기질 등이 풍부하여 이용가치가 매우 높다.

지역별로 산림자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광 산림생태 문화체험 등으로 연결시켜 녹색산업화하여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숲 치유는 대기의 물리적, 화학적, 기능을 이용한 환경의 변화를 통해 환자를 처방하는 것으로서 환자가 부담이 되는 지역 환경을 벗어나 자연적인 환경요소에 순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 해도림(海島林)으로 자연치유력 향상을

해도림(海島林)은 생태계의 보고 갯벌이 있는 해변(海), 해변과 숲 등 훼손되지 않은 자연과 고유의 인문환경을 가진 섬(島), 공기를 정화하는 산소탱크 역할을 하는 숲(林)을 의미한다. 전라남도는 2012년도 해도림사업 추진을 선포한 이후 32개소를 지정하였으며 2014년까지 20여개소에 426억원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해 가고 있다. 2013년 6월에 해도림 CI를 제작 특허청에 업무표장등록을 신청하여 특허청으로부터 2014년 5월에 “자연치유의 땅 전남 해도림” 특허를 받았다.

모든 생명체는 정상 상태를 유지하려는 항상성이나 면역력을 갖고 있는데 이를 자연치유력이라고 한다. 상처가 났을 때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아무는 것 역시 자연치유력 때문이다. 그래서 자연치유력을 흔히 ‘내 몸 안의 의사’라고

부른다. 자연치유력을 향상시키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치유하며,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게 된다.

공기비타민이라 하는 「섬·해변」의 음이온(공기비타민), 「숲」의 피톤치드(Phytoncide)가 풍부하고 부유세균, 미세먼지 등이 적은 자연치유의 최적의 공간이다. 전라남도는 해도림을 전남을 대표하는 힐링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해도림 지정현황(32개소)

해변(7)	섬(7)	숲(18)
여수(만성리, 방죽포) 고흥(발포) 보성(울포) 함평(돌머리) 완도(신지) 신안(증도)	여수(돌산도) 고흥(우도) 완도(노화도, 생일도) 신안(증도, 임자도) 진도(관매도)	여수(봉황산), 순천(용계산), 나주(금성산), 광양(백운산), 담양(산성산), 곡성(청계산), 구례(천황봉), 고흥(팔영산), 보성(제암산), 화순(만연산), 장흥(억불산), 강진(초당산), 무안(연정산), 완도(삼두산), 진도(침찰산), 장성(축령산), 신안(증도 해송숲), 함평(모악산)

### 치유의 숲

이른 아침에 숲이 우거진 곳이나 바닷가를 거닐다보면 무언가 가슴 깊이 파고드는 상큼한 느낌이 든다.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Phytoncide)와 섬·해변에서 나오는 산소음이온이 공기 중에 풍부하기 때문이다. 맑고 깨끗한 공기는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최근에는 자연치유를 의미하는 “에코힐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에코힐링(Eco-healing)은 자연(Ecology)와 치유(Healing)의 합성어로 우리에게 “자연치유”라는 말이 더 친숙하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자연치유가 대세다. 전 세계는 지금 자연치유를 포함한 대체의학에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쏟고 있다.

이웃 일본은 나가노현의 시나노마치에 대규모 수목원을 이용해 만든 “산림치유센터”가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이곳에서는 나무들이 발산하는 피톤치드, 곤충·동물들이 내는 소리, 식물들의 향기 등을 통해서 도시생활에 찌든 인간의 다양한 병을 근원적으로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그 효과가 입증되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시나노마치 수목원은 전문치료시설, 자연친화적 숙박시설 등을 마련해 두고, 1박 2일부터 14박15일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섬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질 조사를 측정하였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예상보다 높은 산소음이온 측정값(최대 1,410~3,181개/cc)을 보여 “자연치유”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의 유명한 휴양지나 별장이 주로 바닷가 주변에 많이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런 “자연치유” 효과에 대한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전남은 섬의 65%, 숲의 11%, 해안선의 46%를 차지하고 있어 맑은 공기, 깨끗한 물과 청정한 땅을 갖추고 있다.

우리 지역 해변과 섬, 그리고 숲은 자연치유 성분인 피톤치드와 “공기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음이온이 매우 풍부하고, 피톤치드의 주성분인 알파피넨은 국내 다른 지역보다 1.5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 3. 전남 요트마린 실�크로드 조성

오늘날 마리나는 요트·보트의 생산, 판매, 정박, 보관, 정비 및 레스토랑, 숙박시설, 쇼핑센터 등 각종 서비스시설이 갖추어진 복합해양레저시설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마리나는 해양관련 파생산업을 발전시키는 견인차의 역할을 하는 해양관광사업 핵심시설로써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마리나와 요트 산업에 눈을 돌려 국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매개체로 삼고 있으며, 연간 세계 시장규모는 500억불에 달하며 매년 100만척 정도의 신규수요가 발생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2010년 1월에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2010~2019년)’을 확정하고 전국 46개(전남 7) 항만을 지정 고시하였으며, 2011년 12월에는 국내 마리나산업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국내수요 창출, 해외 요트유치, 해양레저 스포츠저변확대 등 동북아를 리드하는 마리나 허브국가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마리나 산업육성대책」을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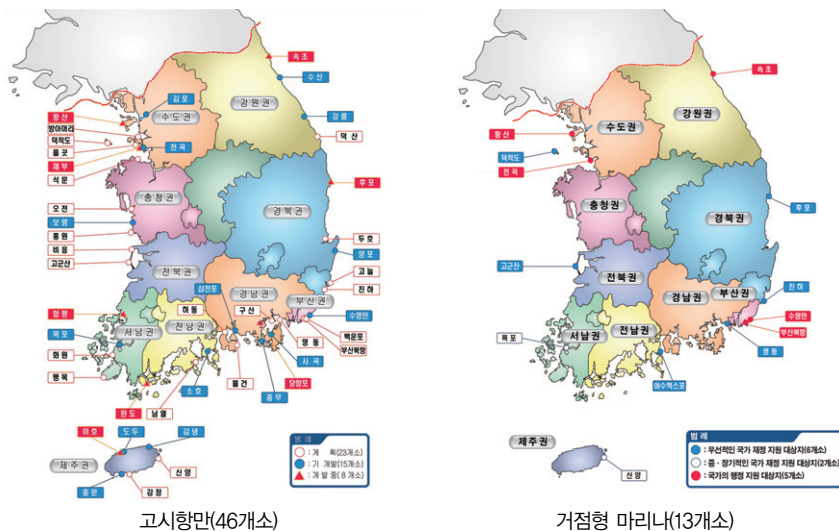


**전남 고시항만 현황**

권역	마리나항만	개발유형	계류규모(척수)	개발구역	비고
계	7개소		577(육상 325, 해상 252)		
서남권	화원(해남)	레포츠타입	100(육상 50, 해상 50)	기타연안	계획
	팽목(진도)	레포츠타입	100(육상 50, 해상 50)	연안항	계획
	함평	레포츠타입	20(육상 0, 해상 20)	무역항	개발
	목포	레포츠타입	57(육상 25, 해상 32)	기타연안	운영
권역	완도	레포츠타입	100(육상 50, 해상 50)	무역항	계획
	남얼(고흥)	레포츠타입	100(육상 50, 해상 50)	기타연안	계획
	소호(여수)	거점형	100(육상 100, 해상 0)	기타연안	운영

마리나산업 육성 비전에 따르면 2011년 대비 마리나산업 규모는 2015년에는 3배, 2020년에는 10배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즉, 2015년까지 요트와 보트는 2만여척 증가하고 고용창출은 약 3만명,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2.1조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2013년에는 전국 13개 항만을 국가 재정지원 거점형 마리나로 선정하고, 이중 여수 엑스포장을 비롯한 6개소는 우선 재정지원 대상항만으로 정해 방파제 등 기반시설에 한해 개소당 국비 300억원을 지원하여 올해부터 2017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여수엑스포장 마리나 예정지구

전남은 아름다운 6,475km의 해안선과 65개의 해변, 그리고 2,219개 섬 등 전국에서 해양레저 활동을 즐기기에 가장 적합한 천혜의 해양여건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정책과 가장 부합하는 지역이다.

더불어 전남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환경 자원과 연안 해양레저 기반시설과의 연계가 강점으로 작용하고, 대불산단지에는 16개 요트 관련업체를 보유하고 있어 일부 조선업체의 장비부문 업종전환 유도가 가능해 요트엔진, 기자재 등 연관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목포·여수·완도 등 권역별 주요 항을 제외하고 유희항만이 많아 피서리나(어항+마리나)로 개발할 경우 투자액 대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어 유희항만 개발과 함께 미래 해양레저의 꽃인 요트관광 수요대비는 물론 동북아 마리나 중심지로의 도약이 기대된다.

특히, 마리나의 주 수요층인 고소득층이 중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한·중·일 마리나 네트워크 연계시 중간지점인 전남이 경유지로써의 역할이 가능해 요트관광 대중화 촉진과 정부정책에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13년 5월 전국 최초로 “전남 요트마린 실크로드” 조성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 결과, 중국 마리나 잠재고객들은 “한국에 마리나가 생긴다면, 동남아와 어떻게 다른지 꼭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동남아보다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한국에서 마리나를 즐길 수 있다면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방문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라남도는 “전남 요트마린 실크로드 조성” 사업을 위해 도내 54개 유희항만을 대상으로 개발계획, 수심, 정온도, 수역 시설, 배후부지, 지원시설, 지리적 위치 및 중요성, 주변 관광자원, 접근성, 어업인(시군)의견, 어업상황, 구조특성, 자연조건 등 마리나 조성요건 등 13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4개 로드(해양 3, 강 1)에 28개항(허브 4, 경유 24)을 개발하는 2,215척 계류규모의 999km 요트 길을 확정하였다.

단계별 개발계획 : 2013~2025년

개발순위	개발항	아일랜드로드	장보고로드	엑스포로드	영산강로드
계	28	10	10	6	2
단기개발 ('13~'17년)	11	목포, 평화광장, 함평, 대흑산도	도청, 완도, 마량, 비봉	소호, 신항(엑스포장)	나불도
중기개발 ('18~'21년)	12	계마, 톱머리, 원평, 응곡	우수영, 진도 이목, 수문	안도, 남열, 웅천	영산포
장기개발 ('22~'25년)	5	우전, 가거도	화원, 송군	신양	

아일랜드로드는 목포항을 허브항으로 무안, 함평, 영광, 신안 대흑산도항과 가거도항을 거쳐 목포로 귀항하는 500km의 서남권 다도해 탐방항로이고, 장보고로드는 완도항을 허브항으로 해남, 진도, 강진, 장흥, 보성에 이르는 중부권 청정해역을 탐방하는 250km의 장보고기념 항로다.

그리고 엑스포로드는 여수신항을 허브항으로 여수, 고흥, 보성에 이르는 161km의 전남 동부해안을 연결하는 세계해양엑스포 기념항이며, 영산강로드는 목포내항을 출발, 목포대교를 지나 영암호 통선문, 제수문, 대불교, 동암교, 수로교를 지나, 영암 나불도에 도착한 뒤 강을 따라 영산포까지 올라가는 바다와 강이 만나는 88km의 파워보트와 뱃기요트 중심의 항로이다.

이와 같은 요트 길은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2,215척 규모로 28개항에 총 7,916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CIQ(세관, 출입국, 검역) 기능을 갖춘 거점형 마리나로 여수엑스포장과 목포내항 두 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허브·경유항만 및 구간거리

로드별	허브항	경유항	구간거리		비고
			km	mile	
계	4	28	999.0	539.4	※ 1mile = 1,852m
아일랜드로드	목포항	10	500.0	270.0	목포기점 왕복
장보고로드	완도항	10	250.0	135.0	목포내항 ~ 보성비봉
엑스포로드	여수신항	6	161.0	86.9	여수신항 ~ 보성비봉
영산강로드	나불도	2	88.0	47.5	목포내항 ~ 영산포

우선 재정지원 대상인 여수엑스포장은 올해 실시설계비로 국비 16억원이 반영되어 300척 규모(해상 150, 육상 150)로 기반시설에 한해 최대 300억원을 국비로 지원 받아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중장기 지원 대상인 목포내항은 어선 및 해경 부두가 2015년까지 북항으로 이전하면 약 430척 규모의 레저선박 전용항만으로 2019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전라남도에서는 정부의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기 반영된 7개 항만을 제외한 21개 항만에 대해 기본계획 변경(추가고시)을 건의한 결과 2014년 수정용역을 거쳐 변경계획에 반영되면 국비 등 관련예산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혼재된 관계법령을 일원화하고 마리나 개발은 사회간접시설임을 감안 재정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여 국가 재정 지원 거점형 마리나로 2개소가 선정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요트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에만 있는 요트면허 제도 폐지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

2천5백리의 전남 요트길이 조성되면 유희항만개발을 통한 어업 외 새로운 소득원 발굴로 이어져 낙후된 어촌경제를 살리고 일본, 중국 등 요트항로를 다변화하여 전남이 동북아를 리드하는 요트·마리나 허브지역으로의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요트마린 실크로드 항로

## 4. 전남 관광진흥기금 조성·운영

### 추진배경

국민여행실태조사(한국관광연구원, 2012)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국내여행 참가자들이 많이 찾는 여행지로 조사되었다. 특히 '10년, '11년 전국 7위에서 3위로 부상했으며, 숙박여행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여행패턴의 변화를 실감케 한다.

장보고로드			숙박여행			당일여행		
'10년	'11년	'12년	'10년	'11년	'12년	'10년	'11년	'12년
7.7%	8.2%	9.7%	7.5%	7.5%	9.1%	7.9%	8.9%	10.1%
(전국 7위)	(전국 7위)	(전국 3위)	(전국 7위)	(전국 7위)	(전국 5위)	(전국 6위)	(전국 4위)	(전국 4위)

그러나 안타깝게 여행만족도 조사에서는 가구여행은 '10년 4.04, '11년 4.12, '12년 3.88로 전국 14위, 개인여행은 '10년 4.19, '11년 4.20, '12년 3.96으로 전국 10위를 차지했다. 특히 만족도가 낮은 항목에는 교통, 숙박시설, 관광지 물가, 관광지 혼잡도 등이 꼽혔다. 관광숙박시설을 보면, 전국 관광숙박시설의 5.34%인 50개소만을 갖고 있다.

### 추진경위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관광산업 발전의 최대 현안인 숙박시설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남 관광진흥기금' 조성을 추진했다.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숙박시설 투자를 희망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저리로 기금을 융자해 초기 투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기금 조성목표액을 600억원으로 설정하고 매년 60억원씩(도 27, 시·군 33/시·군당 1.5) 10년간 조성해 관광사업 융자금으로 활용키로 했다.

관광진흥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도,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도는 정부 출연금 뿐만 아니라 카지노 사업자의 부담금과 출국납부금 등 막대한 재원을 바탕으로 융자사업과 보조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보조사업만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라남도가 운용하는 기금은 도와 시·군의 출연금으로 조성되며,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자체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 조례·시행규칙 제정 및 기금 조성·운영

전라남도는 기금 조성과 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2012.12.12)』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2013.5.13)』을 공포하였다.

기금의 재원은 도와 시·군의 출연금으로 조성되는데 2013년 말 52억 6천만원이 조성되었다. 2014년에는 연초부터 운용계획을 홍보해 희망하는 업체가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으로 30실 미만의 소형호텔업과 20실 이상의 의료관광호텔업이 지원대상에서 포함되었으며, 전남도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우선 지원키로 하였다.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공고를 정례화 함으로써 희망업체가 행정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업체별 최대 용자규모는 신축 30억원, 증축 10억원, 개보수 5억원이다.

## 5. 국제 크루즈, 전세기 연계 해외관광객 유치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해외관광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7년 6,448,240명, 2011년 9,794,796명에 이어 2013년에는 12,175,550명으로 2007년 기준 6년 만에 거의 2배 가량 증가하는 등 해외관광객이 연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 한류영향 등으로 인해 방한 중국관광객은 2007년에 1,068,925명, 2011년 2,220,196명에 이어 2013년에는 4,326,896명으로 2007년 기준 6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함으로써 방한 최대 관광국으로 부상했다.

반면 일본관광객은 엔저현상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 한일 과거사 문제, 독도 문제등으로 2007년 2,235,963명, 2011년도 3,289,051명에 이어



2013년도에는 2,747,75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771,042명 감소하였다.

전남을 방문한 방한관광객은 2007년 109,620명, 2012년 245,081명으로 5년 만에 2.2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중국관광객은 2007년 19,240명, 2012년 51,064명으로 2.65배가 증가해 전남 방한관광객의 2.23배보다 0.4배가 증가하였다. 대만, 홍콩을 비롯해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 시장은 한류현상으로 인한 재방문 수요가 증가하고 계절 및 미식체험 선호 등으로 전남지역을 방문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미, 한·EU FTA 체결 및 최근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힘입어 전남을 방문하는 구미주(歐美洲) 관광객 또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에서는 2014년 한·러 무비자 시행으로 러시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였다.

전라남도는 섬과 바다, 깨끗한 자연환경, 친환경 먹거리, 유구한 역사문화 유산을 간직한 지역으로 '한국 속의 또 다른 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가치 있는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하지만 나라별 관광객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우선 중국관광객은 쇼핑관광을 선호하기에 면세점 등 쇼핑인프라가 풍부한 수도권, 제주 및 부산이 주요 방문지역이다. 일본관광객은 쇼핑, 성형미용의 FIT와 노년층의 지방관광이 주류이며 구미주 관광객은 대부분이 FIT 위주여서 교통인프라, 다국서비스 등 수용여건이 좋은 지역을 주로 방문한다. 동남아 등 비교적 더운 열대지역의 관광객들은 스키 등 겨울체험 상품이 주류로써 전라남도는 이러한 나라별 관광성향에 불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남은 저가 위주의 거쳐 가는 관광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무엇보다 리조트 등 고급숙박시설, 쇼핑시설 등의 관광인프라, 의료관광체계 등 수용여건 미비로 고급관광객과 FIT 유치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전라남도는 전략수정이 불가피했다. 도내 입국관문으로 직접 해외관광객을 유치해 무엇보다 도내 체류일수를 늘려 먹거리, 체험 등 전남비교우위 자원을 더 많이 보고 즐기게하여 고급관광지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전략을 세우게 되었다.

또한 전라남도는 도내 입국관문을 활용하는 관광상품 운영과 역내 소비촉진을 통한 관광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춤으로 그 동안 서울, 제주를 통해 거쳐 가는 관광지의 이미지를 벗고 고품격관광 이미지로 거듭나게 한다는 목표로 해외관광객을 유치했다.

이에 전남 도내 주요 입국관문인 무안국제공항과 목포·여수에 있는



크루즈터미널을 활용한 인바운드 전세기와 국제 크루즈선을 통해 대규모 해외관광객을 전남도로 유치하기 위해 해외 현지마케팅활동 강화, 국제관광전 홍보관 운영을 비롯해 해외 현지여행사와 언론인 팸투어를 선별적으로 진행했다. 무엇보다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2010년부터 현지 SNS 등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과 한류스타 마케팅 등을 진행해 해외에서 전남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주력했다.

또한 2014년 4월 6일부터 법무부에서는 제주행 중국환승관광객 72시간 무비자입국프로그램을 인천·김해공항에서 무안·청주·양양공항까지 확대 운영하여 중국단체관광객이 선박을 활용하는 매력적인 관광상품과 남도골프상품 등 제주 연계 무비자입국 고부가가치 상품을 운영하는 등 지역 관광 산업의 새로운 획을 긋게 되었다.

해외관광객이 이용하는 숙박, 음식점소에는 청결, 친절, 요금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펼쳤고, 관광지 외국인 안내판 정비, 사후면세점 지정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지원, 민박 개보수, 도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기념품 개발 및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각종 홍보활동을 추진했다.

2004년 일본 퍼시픽 비너스가 여수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2012여수 세계박람회장내 여수 크루즈 전용부두가 개항하여 지역 크루즈관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2013년 처음으로 광양항에는 14만톤급 로얄캐리비안 대형 크루즈선이 정박하면서 매년 2배 가까운 크루즈 관광객이 전남을 방문하고 있다.

년도별 크루즈입항 내용

(단위 : 항/명)

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10	2012	2013
항차	1	1	1	2	3	2	12	18
인원	320	406	420	700	1,050	1,866	16,241	47,492

특히 국제크루즈 유치를 위해 2014년도 6억원 예산을 확보 하였고, 환영·환송 환대서비스 강화 등 수용태세를 획기적으로 개선함과 더불어 크루즈 박람회 참가, 크루즈선사 세일즈활동 및 팸투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2014년에는 중국암웨이, 우씨앤지, 완메이 등 크루즈선을 활용한 대규모

해외 인센티브 관광객이 끊임없이 방문할 계획이다. 특히 6월 3일부터 12일까지 중국 암웨이사가 로얄캐리비언(14만톤급) 크루즈선을 활용해 총 5항차 2만5천명이 광양항으로 입항하여 도내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여수엑스포공원 디지털갤러리에서 대규모 갈라디너쇼를 진행하며, 방문객의 관광만족도 제고를 위해 각종 환대행사 진행을 비롯해 도내 전세버스 및 식당이용, 특산품 구매 유도 등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다.

또한 2013년도에는 정기노선 성격의 전세기를 유치했는데 중국 텐진과 선양 2개 노선에 총 148편 3만9천명을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유치하는 등 중국 정기성 전세기 운항을 통해 대규모 중국관광객을 유치했다.

년도별 무안국제공항 외국인 입국현황

(단위 : 명)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인원	411	3,381	2,745	3,582	4,104	4,592	23,591

표에서도 보듯이 무안공항에 정기성 전세기가 운항되기 시작한 2013년부터는 외국인 입국현황이 2012년 대비 무려 5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무안공항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전라남도는 2014년에는 중국 정저우, 따롄, 우한, 난창 등 신규 4개 노선과 텐진, 선양 등 기존 2개 노선 총 6개 노선을 유치했고, 총 160편 운항에 5만여명이 입출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한해만 하더라도 국제크루즈와 정기성 전세기 유치로 인해 약 40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공항 면세점 매출액 증가, 각종 관광인프라 개선과 더불어 해외에서의 전남도 관광인지도 제고 등 간접 파급효과 또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수항 입항 코스타 빅토리아호(2013. 3. 29)

## 6. 실감미디어 R&D 기반구축

전라남도는 여러 신산업을 발굴해 육성하고 있었지만, IT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미래 지향적 산업의 발굴이 필요했다. 따라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동신대학교 등 지역 대학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연구기관, 문화콘텐츠 분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사업 발굴에 나섰다. 수차례의 회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실감미디어산업이 국내외 산업 환경 및 전남지역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 전남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가장 적합하고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의견 접근을 모았다.

실감미디어란 사용자 만족을 위해 몰입감과 현장감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모든 정보를 고품질의 시각, 청각, 촉감 등 오감정보로 생성·처리·저장·전송·재현하여 첨단기술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감미디어산업을 전남의 미래산업으로 판단한 배경에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자원,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등 문화산업과 영상산업, IT기술과 연계한 융복합콘텐츠 산업 육성 기반이 확충될 혁신도시

건설, 실버·해양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개발이 가능하다는 비교우위의 장점이 고려되었다. 특히 이 산업은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에너지 관련 4개 기관, 정보통신 관련 4개 기관, 농생명 관련 4개 기관, 문화예술 관련 3개 기관 등 총 15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할 수 있으며, 혁신도시 조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무엇보다 실감미디어산업 육성은 지역의 취약한 산업 구조를 녹색성장으로 탈바꿈시키고, 서비스산업 수요 창출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며, 경제활동 인구 유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전라남도는 디지털콘텐츠협동연구센터 등 연구 기반과 전문인력을 일부 확보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취약한 연구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타 지역보다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실감미디어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때마침 2009년 할리우드의 입체영화인 '아바타'의 성공과 2010년 '남아공월드컵'의 실시간 입체방송을 계기로 실감미디어가 산업계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었으며, 해외 각국에서는 실감미디어 산업 분야의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투자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발맞춰 정부에서도 지식경제부(현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방송장비 고도화 추진계획'에 따라 차세대 방송장비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부 계획에 발맞춰 경상북도와 공조하여 실감미디어 분야의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게 되었다.

성과창출형 실감미디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천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필요하였으나, 전남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단독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워 중앙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발전 기여 등 다양한 정부의 설득 논리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슷한 시기 3D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있던 경상북도와와의 공조를 통해서 초광역사업으로 실감미디어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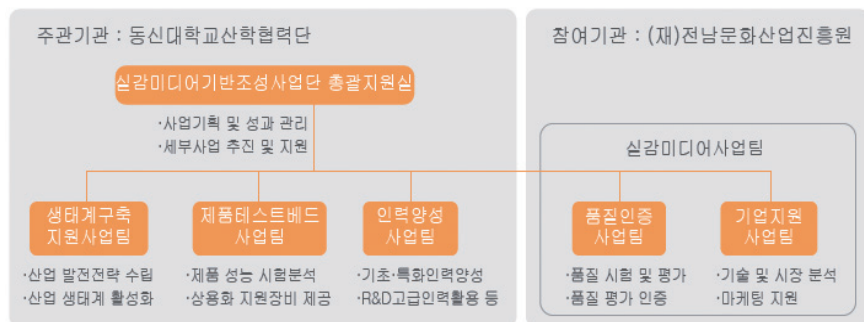
전라남도도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자연유산과 인류 유·무형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지역전략산업도 유사하여 두 지역 간 연계를 통한 초광역 클러스터조성 전략은 중앙정부 설득에 매우 효율적인 결과로 나타나 2010년 12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후 2011년 9월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수행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 적정성이 인정되어 최종

사업비 1,847억원을 확보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마침내 2012년 9월 한국산업기술 진흥원과 동신대학교, 동국대학교 등 주관기관 간 사업 실시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사업추진기관간 MOU 체결

‘실감미디어산업 R&D 기반구축 및 성과확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먼저 실감미디어 품질인증, 인력양성, 기업지원, 제품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기반조성사업단을 구축하였다. 실감미디어기반조성사업단은 협업적인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반조성 사업추진운영위원회 구성, 성과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공동마케팅전략 수립·추진, 국내외 홍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실감미디어기반조성사업단 현황





실감미디어기반조성사업단

실감미디어산업은 산업 패러다임 변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고, 혁신도시 내 문화산업관련 공공기관과의 연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우수한 IT기술을 바탕으로 국제적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산업분야이다. 특히,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인터넷진흥원, 전파연구소, 한전KDN 등과 같은 실감미디어 관련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 발굴도 가능하다. 현재 빛가람 혁신도시를 실감미디어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로드맵 및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또한 실감미디어 산업의 핵심지원기관으로 관련기업의 창업과 지원에 필요한 창업보육시설, 교육시설, 장비시설 등을 갖추어 우수인력의 창업지원, 관련제품개발, 품질인증, 해외 시장진출을 위한 마케팅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실감미디어기반조성센터도 건립 중이다.

실감미디어사업은 기업지원, 품질인증체계 구축, 제품테스트 베드구축, 인력양성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실감미디어 품질인증사업 및 제품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실감미디어 제품의 고도화를 통한 기업역량 강화를, 기업지원 사업은 실감미디어 관련기업의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기반조성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인력양성사업은 기초인력 및 고급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전남은 이 사업을 통해 약 1,650명의 실감미디어 전문인력 확보와 50개사 이상의 관련기업 유치 혹은 창업을 기대하고 있다.

실감미디어 관련 시장은 아직 본격적인 시장 확대를 위한 초기단계에

불과하지만, 실감미디어기반조성센터가 준공되는 2016년 이후에는 시장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3D콘텐츠를 포함하는 실감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국내 시장규모는 연평균 21%씩 성장하여 2027년까지 총 20조 5천억원 규모의 거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며 (ERTI, 2009), 실감미디어 서비스 부문은 연평균 24%씩 성장하여 2027년까지 총 14조 7천억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향후 실감미디어기반조성센터를 중심으로 실감서비스 클러스터 조성, 국내 지자체와 연계한 공공 서비스 개발확산, 혁신도시 이전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국내외 정보문화산업 선도기업 유치, 지역 문화자산을 활용한 수익성 있는 실감미디어 융합콘텐츠개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산업으로서의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7. 독립도서관 건립 및 「1읍면 1도서관 조성」

### 독립도서관 개관 및 성과

전라남도는 2011년 7월 31일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12,078㎡의 전라남도립도서관을 건립하여 준공하였다. 독립도서관은 도 차원의 도서관 시책수립 시행과 지역납본센터 운영, 도내 각종 도서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기능을 한다. 또 도민들의 정보문화센터로서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디지털자료 및 전자책 서비스 확대 등 도민정보교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12년 1월 12일 독립도서관 개관 이후 도서관 운영 안정화 및 지역대표 도서관으로서 역할 정립을 위해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도서관운영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또한 도민 책 읽기 운동을 위해 매년 어린이, 청소년, 일반 분야 등 3개 분야에 올해의 책을 선정하여 시군 공공도서관과 함께 독서릴레이, 작가와의 만남, 북콘서트 등의 추진으로 「책 읽는 전남」 범도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도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다지는 지혜의 샘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고, 도내 공공도서관과 네트워크 시스템을 연결하여 통합회원증 발급 및 도서대출서비스 등도



실시하고 있다. 도서관 운영은 「도서관친구들」 및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으로서 자리매김 하고, 생애주기별 독서문화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운영 등 도민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연도별 독립도서관 이용현황**

(단위 : 명, 권) \* ( )는 일일평균

구분	이용객	도서대출	회원가입(카드발급)
'11년 시범운영	42,194 (1,140)	42,150 (1,139)	6,327
'12년	469,326 (1,422)	385,828 (1,169)	21,119
'13년	570,099 (1,743)	430,122 (1,315)	38,006

**「1읍면 1도서관 조성」성과**

2008년부터는 도서관이 없는 읍면지역의 폐교, 마을회관 등을 활용하여 「1읍면 1도서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식정보 및 생활편익 서비스를 손쉽게 제공하여 생활권 중심의 친환경적인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전라남도내 도서관은 2008년부터 2013년 말까지 총사업비 815억원 투자하여 공공도서관 22개소, 작은도서관 28개소, 학교·마을도서관 61개소, 마을도서관 12개소 등 총 128개소를 조성했다. 그 결과 '08년 말에는 136개 읍·면 도서관이 없었으나 '13년 말에는 76개소로 크게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밖에도 2013년 3월부터는 문화소외지역인 농산어촌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출판사, 향우, 도민대상으로 「도서 모으기」를 지속 추진하여 행복마을 등 각종 작은 도서관에 도서를 전달하였다.

2014년에는 공공도서관 1개소, 작은 도서관 2개소, 학교·마을도서관 5개소, 마을도서관 5개소 등 13개소 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43억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하여 도서관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향후 3년 이내에 도서관 없는 읍면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657백만원)에는 목포시립도서관 등 15개 도서관이 선정되어 지역주민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35명)를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다문화 도서관 지원사업(38백만원)은 순천삼산도서관 등 9개 공공도서관이 선정되어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작은도서관 육성시범지구 조성' 중앙공모 사업에 여수시립도서관이 선정되어 도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수현천 작은도서관 사업추진 전(좌), 후(우) 전경



여수현천 작은도서관 내부모습

## 8. 독립국악단 토요일공연

전라남도립국악단(이하 독립국악단)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연예술단체 하나로, 남도의 전통 가(歌)·무(舞)·악(樂)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1986년 8월 9일 창단되었다. 그동안 국내 주요 도시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을 순회하면서 지금까지 2,000여회의 공연을 통해 전라남도의 전통 예술을 널리 알리는 문화 사절단 역할을 해오고 있다.

### 토요일공연으로 국악 대중화 선도

독립국악단의 대표적인 ‘토요일공연’은 2006년부터 남도예술의 도시 목포에서 매주 상설공연되고 있는데, 지역민은 물론 우리지역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하는 토요일공연은 전라남도 전통공연예술의 브랜드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토요일기획공연을 통해 지역의 역사적인 인물을 소재로 활용한 브랜드공연을 개발하여 매년 선보이고 있다.

2011년에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삶을 조명한 국악뮤지컬 ‘인동초처럼 살리라’를 공연하였고, 2012년에는 전통 판소리에 오페라적 요소를 가미해 제작한 판페라 ‘이순신’이 공연되었다.

판페라 ‘이순신’ 공연은 3D영상과 디지털 영상기법을 동원해 웅장한 스케일과 독특한 볼거리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작품이다.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역사인물극을 탄탄한 스토리와 함께 획기적인 연출로 대중들의 흥미를 유발하는데 성공,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이와 같은 평가에 따라 2013년 3월부터 ‘판페라 이순신’ 공연 중 일부를 ‘토요일공연’에 매월 한 차례씩 선보이고 있다. 또한 백성의 영웅 홍길동의 역동적이고 흥미 있는 삶을 창극으로 제작한 ‘홍길동’을 공연하여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 작품은 2014년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순회공연을 준비 중에 있다.

이 밖에도 토요일공연은 현대적인 흐름에 맞는 공연을 기획하여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 2012년에는 국악인 오정해씨와 이 지역의 음악가들을 초청하여 국악과 양악이 함께하는 ‘음악여행’ 공연을 추진하였고, 2013년은

다양한 장르의 아리랑을 통해 아리랑의 세계화를 위한 공연을 추진하여 국악 대중화를 선도하였다.



가·무·악 '타무희'



기획공연 '아리랑'



기획공연 국악뮤지컬 '인동초처럼 살리라'



기획공연 판페라 '이순신'

### 토요공연 문화관광상품화 추진

2006년 2월 시작된 토요공연은 지역민과 외지 관광객들에게 남도의 전통예술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관광 상품화 계획을 수립하고, 여행사 관계자 팸투어, 언론기자단 팸투어, TV 방송광고, 홍보물 제작 등을 추진하였다.

2009년부터는 남도관광의 관광코스로 상품화되어 하나투어, 흥익여행사 등을 통해 외지관광객이 토요공연장을 방문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외국어홍보물 제작과 공연 중 영어해설 등을 통해 공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토요공연 상설공연화가 본격적으로 정착되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사업 국비지원 사업과 지방비 등이 투입되면서 명품 토요공연을 구축, 남도의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토요공연 상설문화프로그램 사업 국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227	35	30	30	44	88
국비	227	35	30	30	44	44
도비	44	-	-	-	-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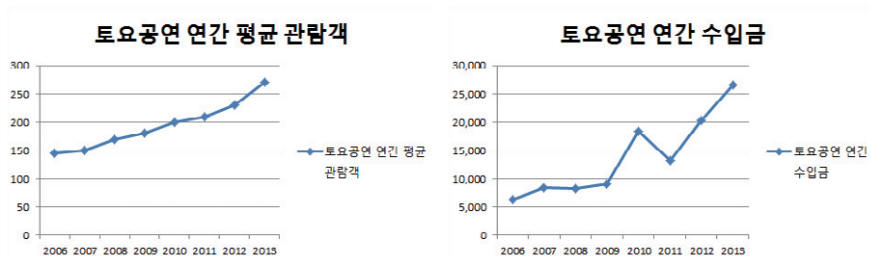
### 토요공연 문화관광상품화 성과

토요공연은 매년 지역민 및 외지관광객 수가 증가하면서 남도의 주말여가 문화로 정착하였다.

2009년부터 하나투어, 흥익여행사 등을 통해 토요공연을 찾는 외지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하여 매주 20~80여명이 토요공연장을 방문하고 있다. 2013년에는 한국관광공사 여행작가 및 블로그 기자단이 방문하여 토요공연을 취재하였고, 외국인 유학생 및 폐루교원들이 토요공연장을 찾았다.

2006년 시작된 토요공연의 연간 관람객 수는 7,550명이였다.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의 입장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는 14,484명으로 2배 가량 관람인원이 증가하였다. 관람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입장료 수입 역시 2006년 6,373천원에서 2013년 26,659천원으로 무려 4배 이상 증가하여 토요공연이 목포지역의 문화관광코스임을 명백히 입증하였다.

(단위 : 명, 천원)



토요공연 관람객 및 수입 현황





한국관광공사 여행작가 및 블로그 기자단



외국인유학생 팸투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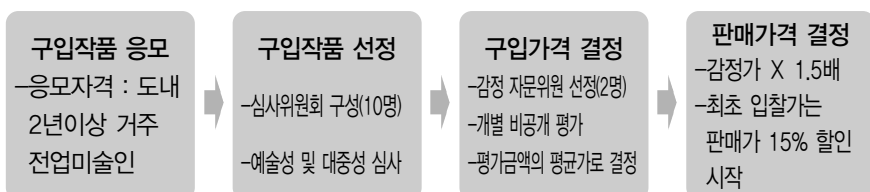
## 9. 남도예술은행 토요그림경매

토요그림경매는 우리 도내 거주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신진 미술인과 예술적 역량이 우수한 전업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하여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 미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 조성 및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관광상품이 되었다.

### 남도예술은행 설립

전라남도는 전업 미술인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05년 6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남도예술은행을 설립하였다. 2005년 6월 남도예술은행 설립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전라남도 남도예술은행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10월에 공포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2005년부터 작가 지원을 위해 한국화, 문인화, 서예, 서양화 분야 전업 미술작가를 대상으로 공모하고 있다. 전문가 심사를 거친 후 2차 감정평가를 통해 선정하여 작품구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마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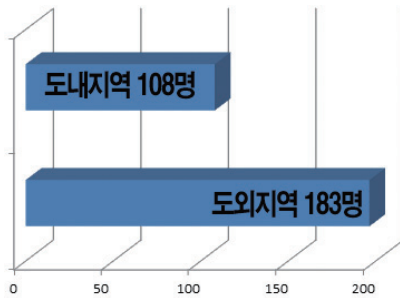


현재까지 남도예술은행 사업으로 200여명의 작가를 선정, 3,267점의 작품을 구입하였다. 판매 수입금 전액을 작품 구입비로 환원하여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재 구입하는데 사용하여 지역작가들의 창작활동 의욕 고취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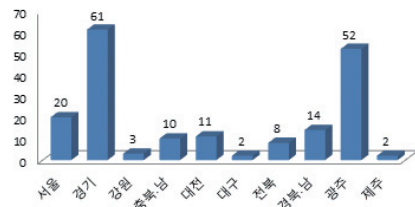
### 추진실적

“남도예술은행 토요일그림경매”는 2006년 8월 12일 소치 허련, 미산 허형, 남농 허건선생 등 가계를 통해 한국미술사에 큰 획을 그었던 진도 윤림산방(진도역사관 전시장 로비)에서 최초로 경매를 시작한 이후 2014년 4월 5일 현재 400회째를 이어오고 있다.

경매장 개설 초기에는 낙찰실적이 매주 평균 3~4점 내외에 머물렀다. 2009년 9월 전남문화예술재단으로 사업을 이관한 이후 미술애호가와 구매 고객층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과 운영개선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도내지역보다 타 지역 미술 애호가와 일반인들에게 크게 주목 받으면서 2011년에는 327점, 2012년에는 393점, 2013년에는 401점으로 판매량이 급신장하게 되었다.



2013년 기준 도외지역 미술 애호가 확보



도외지역 미술품 구매자 분포도

토요일그림경매 행사는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남도예술은행 홈페이지(www.nartbank.co.kr)에 나와 있는 금액보다 최소 15%에서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경매를 시작하고 있다. 매월 마지막 주에는 서예작품 균일가 경매 등 다양한 기획경매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토요일그림경매에는 도내·외 관광객, 전문 수집가, 일반 애호가 등 연 평균 7천여명이 참여하여 3,002점이 낙찰되었으며 총 6억 6천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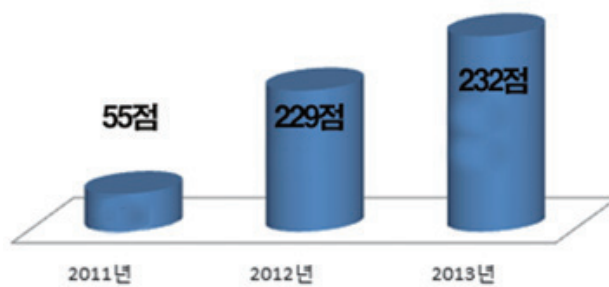
'05 ~ '14년도별 작품구입 · 판매작품 내역서

구분	구입작품	판매금액	판매작품	판매금액
계	3,358	1,005,350	3,002	667,168
2005년	191	70,000	-	-
2006년	377	100,000	79	29,590
2007년	815	200,000	141	44,466
2008년	139	50,000	499	83,062
2009년	632	200,000	492	93,357
2010년	597	198,950	553	126,316
2011년	55	18,130	327	79,238
2012년	229	94,310	393	84,863
2013년	323	73,960	401	98,046
2014년 3월 기준	-	-	117	28,230



연도별 작품판매 성장 내역서

또한 남도예술은행 응모접수 방법개선을 위한 「온라인 응모제」를 실시하고 선정 작가 편의제공을 위해 「권역별 계약」을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였다.



연도별 창작지원 작품수 증가

경매장 주변 환경 개선사항으로 경매장내 음향·조명 설치, 경매소개 PPT 추가 제작, 벼룩시장 이동가판대를 설치하고, 소장작품을 실시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자산관리시스템도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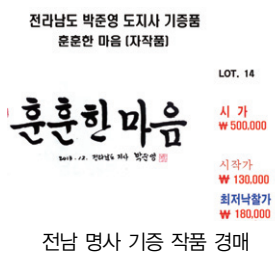
또 「대규모 행사 홍보관 운영」(내나라 여행 박람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및 특별행사(7주년, 추석맞이, 명사 소장품 나눔 경매, 도청 특별 전시판매 등) 등 다양한 홍보행사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평일 그림경매 방문객을 위한 「상설 기획전」과 「외국어 홍보 안내 리플릿 제작」, 명화작품을 활용한 「문화상품점」을 운영하였다.



국제행사 홍보관 운영



단체 방문객 경매장 참관



전남 명사 기증 작품 경매

한편 진도군 후원으로 남도전통미술관 공간 내 2013년 「연중 소장작품 전시」행사와 예술단체 후원으로 「진도개 공연, 진도 민속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 개최를 통해서 사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다. 지역특화사업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2013년도에 “23백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후원 무료전시행사



진도개 공연



진도 예술인촌 공연

또한 사업을 통한 타 기관에서 인정하는 실적으로 2013년 전남도 국정 감사시 '관광객 유치·예술 활성화 우수시책'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그리고 사업을 주관한 전남문화예술재단은 지역예술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진도군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 향후전망

남도예술은행 토요일경매를 남도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관광상품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경영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작품 유통 관리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체 후원·연계 행사로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경매작품 순회 전시 등 경매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남도예술은행은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역작가의 창작활동 지원과 함께 미술시장 활성화, 지역 명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0. 비교우위 문화자원의 세계유산 등재

###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이 규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서 그 특성에 따라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된다.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모두 세계유산 등재 기준에 따라 차별성을 가진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제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또 법적 안전 장치 및 제도적 관리 정책이 수립되어 있어야만 세계유산으로 등재 될 수 있다.

세계유산으로 선정되어도 해당 유산의 소유권이나 관리는 이전과 변화가 없으며, 당사국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세계유산위원회는 당사국이 세계유산을 적정하게 보호 및 관리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2012년 9월 현재 세계유산협약 가입국은 190개국이며, 세계유산은 전 세계 160개국이 보유하고 있는 981점(2013년 6월 현재)에 이른다. 이 가운데 문화유산이 759점, 자연유산 193점, 복합유산이 29점이다.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은 해인사 장경판전(1995년), 종묘(1995년), 석굴암·불국사(1995년), 창덕궁(1997년), 수원화성(1997년),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2000년), 경주역사유적지구(2000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년), 조선왕릉(2009년), 한국의 역사마을 :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2010년)등 총 10건이다.

### 전라남도의 세계유산 등재 및 추진 현황

전라남도에는 화순 고인돌 유적이 유일하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화순 고인돌 유적은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 일대의 계곡을 따라 약 10km에 걸쳐 500여기의 고인돌이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보존상태 역시 좋다. 또한 고인돌의 축조과정을 보여주는 채석장이 발견되어 당시의 석재를 다루는 기술, 축조와 운반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적으로 평가된다.

전라남도는 다양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문화 및 자연자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여 전남의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1994년부터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여 2000년 화순 고인돌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잠정목록에는 염전(신안, 영광), 강진도요지, 낙안읍성, 서원(장성 필암서원), 한국의 전통산사(해남 대흥사, 순천 선암사), 「자연유산」으로는 서남해안 갯벌(전남 신안),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여수시, 해남군, 보성군, 화순군) 등 총 7건이 등재되었다.

잠정목록에 등재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은 매년 조사연구, 학술대회, 국내·외 전문가 워크숍, 국제 세미나 등을 통하여 그 가치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등재 신청서 작성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화순 고인돌 공원

주요 유산의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진행상황으로는 서남해안 갯벌(자연유산)이 2010년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이후 2011년 문화재청으로부터 '우선 등재 추진 대상'으로 선정 되었으며, 2012년 문화재청 준비위원회 활동을 거쳐 2013년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섬갯벌'을 중심으로 전남 신안과 충남 서천 지역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지금까지 세계유산 등재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현지답사, 관계기관 업무협약 등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을 구성하여 신청서 작성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11년 잠정목록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에 장성 필암서원이 포함되어 각 시·도 및 시·군에서 공동 추진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했고, 현재 서원 주변 완충지역 설정, 종합정비계획 수립, 신청서 작성을 거쳐 2016년 등재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의 전통산사로 순천 선암사와 해남 대흥사는 2013년 12월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2014년 추진단을 구성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문화유산으로 화순 운주사와 자연유산으로 무등산 주상절리대(광주 동구·북구, 전남 화순·담양), 지리산(전남 구례, 경남 하동·함양·산청, 전북 남원) 일원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장성 필암서원

## 세계유산이 갖는 의미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것은 해당 유산이 어느 특정 국가 또는 민족의 유산을

떠나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유산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세계유산이 소재한 지역 공동체 및 국가의 자긍심이 고취되고, 우리가 보유한 유산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더 이상 유산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가능한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 11. 고급 숙박시설 유치(영산재, 오동재)

최근 업종별 객실운영현황 및 부대시설운영현황을 파악한 결과 한국전통 호텔업과 가족호텔업의 숙박객수, 평균요금, 객실이용률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단위 관광객의 증가와 더불어 기존 숙박시설과 다른 특색 있는 숙박시설 수요 증가에 따른 현상으로 보여진다. 이에 전라남도는 F1경기장과 가까운 영암과 여수엑스포 행사장 주변에 한옥호텔인 영산재와 오동재를 마련했다.

### 영산강변의 한옥호텔 '영산재'

한옥호텔 영산재가 소재한 영암군도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관광권역상 서남권의 관광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전라남도 전체에서 서남권역의 관광객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수요는 매년 점차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영암군은 전남의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중 서남권에 속하며, 무안의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와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으로 관광거점으로서 역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과 접근성이 양호하여 외지 관광객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또한 영산호 국민관광지내 소재하고 인접한 기존 농업박물관을 개방형·체험형으로 리모델링하고 야외전시체험공간을 조성하여 농업테마공원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어 관광객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영산호 국민관광지는 영산강변에 위치하여 경관과 레저가능성을 갖춘



도의 대표적 관광지이지만, '꺼리'의 부재로 기능을 상실하다 보니 소재 발굴이 절실했다. 또한 남악 등 인근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와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여수세계박람회, 순천정원박람회 등 국제행사 개최로 국내·외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는 등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지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영산재는 국내 여행객은 물론 해외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테마형 호텔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타입의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객실 규모를 소형, 중형, 대형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모든 객실은 남향, 또는 동향으로 배치하여 실내에서 영산강을 조망할 수 있고, 한옥의 고품격과 힐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친환경 자재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였다. 또한 구조, 벽체 및 지붕을 건립함에 있어 최대한 전통 양식을 재현하는 등 전통미를 한껏 살리도록 했다. 거기에 청정지역인 전라남도의 유기농·친환경 먹거리와 남도 고유의 맛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식당 등을 갖춰 전라남도 브랜드가치 상승을 꾀하고 있다.

○시설

구분	객실		부대시설
수량	21호		1식
비고	연립형객실		한식당, 체험관, 세미나실, 전통혼례식장
	독립형	14호	
		단층객실 4호	
독립형	복층객실 3호		

○객실현황

구분	계	연립형 객실		독립형 단층 객실		독립형 복층 객실
		11평형	13평형	15평형	18평형	31평형
객실	21호	7	7	2	2	3

**여수세계박람회장과 오동도가 한눈에 들어오는 오동재**

오동재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숙박시설로 공급되었다. 전통 한국형 남도 한옥 숙박시설 및 정원을 갖추고 전통 예술공연 및 전통 문화의 교육, 전통혼례 거행 등으로 지역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다양한

전통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부족한 관광인프라를 (숙박시설, 체험시설) 확충하고 고품격 한옥 건축으로 숙박시설의 명품화를 기대하고 있다.

오동제는 여수세계박람회 기간과 박람회 종료 후 여수를 방문하는 국내·외 많은 관광객에게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와 그 아름다움 및 우수성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의 파급효과와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 등 부가적인 경제적, 사회적, 공익적 가치가 크다.

## 12. 전라남도체육대회 군(郡)단위 순회개최

### 전남 체육의 과거와 현주소

전남 체육은 한때 서울, 경기, 경북 등과 함께 전국 4강을 형성했던 스포츠 용도(雄道)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 타 도(道) 가운데 하위권으로 처져 있다. 지난해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종합13위 성적이 이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2009년 90회·2010년 91회 대회 연속 10위에 이어 2011년 92회 11위, 2012년 93회 12위 부진이 연속해 이어졌다.

80년대는 한마디로 '전남체육의 르네상스시대'였다. 전남체육은 중심도시였던 광주가 직할시(현 광역시)로 승격된 1986년을 변곡점으로 소위 시쳇말로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격변의 시기를 맞았다.

전남체육의 최전성기는 60년대와 80년대 초반으로 1953년 제34회 전국체전에서 종합 3위에 첫 입상한 전남은 1961년 제42회 대회부터 1970년 제51회 대회까지 종합 2위와 3위를 각각 3회씩 차지하며 그야말로 전국 최강의 위치를 지켜왔다. 1965년 제46회 광주 전국체전에서는 무등경기장과 야구장을 건설하고 지방에서는 전국 최초로 구동체육관을 현대식으로 마련해 우리나라 체육의 텃밭 구실을 했다.

해남 출신의 고(故) 조오련 선수가 1970년 제6회 방콕아시안게임에서 아시아신기록을 작성하며 수영 2관왕에 올라 '아시아의 물개'로 명성을 떨친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 전남 체육은 급격한 부진에 빠진다. 부정선수 시비 등 체육인들의 불협화음이 심화되면서 자연스레 중위권으로

떨어지는 아픔을 겪었다. 이에 자극받아 1976년 ‘전남 체육진흥 3개년 계획’을 수립하며 전남체육 중흥에 나섰다.

‘전남체육진흥 3개년 계획’은 전용체육시설과 장비 부족, 비인기종목 선수 육성 기피 등으로 시행 당시에는 큰 실효를 보지 못했지만 경기단체 조직 강화, 제 규정 정비, 체육진흥 재원 확보, 체육시설 확충 효과는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1980년대에 들면서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1981년 제62회 전국체전부터 1986년 제67회 전국체전까지 6년 연속 종합 2위였다 1984년 LA올림픽에서는 레슬링 김원기와 양궁의 서향순이 금메달을 따내면서 그야말로 전남체육은 절정기를 맞았다. 이것이 전남체육 영광의 마지막이었다. 1986년 전남의 구심인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돼 분리되면서 전남체육도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2000년 전남체육중·고등학교 개교, 2007년 전남체육회의 남악 신도시 이전, 2008년 제89회 전국체전 개최 등으로 ‘제2의 전성기’의 꿈에 부풀었으나, 아직까지는 희망사항으로만 남아 있을 뿐이다. 전남이 이렇게 추락한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체육인들의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남긴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이에 분기탱천한 전남은 체육회를 중심으로 체육인들이 한마음으로 결집해 내실화로 기반 다지기에 나서며 ‘옛 명예 회복’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 전남체육 변화의 시동, 전라남도체육대회 대변혁

전라남도체육대회는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교육청이 후원하는 ‘200만 전남 도민의 체육 한마당 큰잔치’로서 전남체육의 미래를 짚어주는 하나의 대회로 통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 전라남도체육대회는 도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시·군 체육회의 활성화를 기하여 도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로 전남체육진흥을 구현코자 하는 취지에서 지난 1962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했다.

특히,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는 전국체육대회에서의 전라남도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치를 밑돌았다. 선수들의 경기력은 ‘도내용’으로 전락했고, 목포·여수·순천·광양시(市)와 해남군(郡) 등 5개 시(市)·군(郡)이 윤번제로 개최해오던 개최지역 또한 의례적인 행사로 치부되어 개최 열정이 반감됐다.

이에 따라 대회 개최 가치는 더욱 추락되어 가는 모습이 엿보였다. 이 같은 추락은 스포츠가 ‘굴뚝 없는 산업’이라는 신주류에도 역행했고, 그러다보니 당연히 스포츠를 통한 지역 홍보, 특산품 판매,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많은 부대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전라남도에서는 전라남도체육대회의 변화를 꾀했다. 방법은 대략 2가지였다.

그 중 첫 번째 방법이 군(郡) 단위 개최 확대를 통한 스포츠 인프라 구축이었다. 실제로 전남도는 2005년 5개 시(市)·군(郡) 윤번제 개최지인 해남군을 마지막으로 한 뒤 2006년 보성군, 2007년 강진군, 2008년 고흥군, 2009년 영광군, 2010년 화순군, 2011년 나주시, 2012년 구례군, 2013년 장흥군, 2014년 무안군, 2015년 진도군까지 10년 연속 군(郡)단위 개최를 이어오고 있다. 나주시가 1992년 31회 대회 이후 19년만에 개최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첫 개최나 다름없었다. 두 번째는 대회 명칭 변경이었다. 전라남도는 제49회 대회까지는 ‘전라남도민체육대회’로 명명했다. 그러나 지난 제50회 대회 때부터는 ‘전라남도체육대회’로 바뀌었다. 이는 도내 최대 규모의 체육행사에 걸맞은 위상 정립과 더불어 전 도민 참여율 제고의 일환으로서 명실공히 전남 최고 권위의 체육대회로 자리매김코자 하는 의미를 담아냈다.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 현황(최근 10년간)

2006년 (제45회)	2007년 (제46회)	2008년 (제47회)	2009년 (제48회)	2010년 (제49회)	2011년 (제50회)	2012년 (제51회)	2013년 (제52회)	2014년 (제53회)	2015년 (제54회)
보성군	강진군	고흥군	영광군	화순군	나주시	구례군	장흥군	무안군	진도군

## 전라남도체육대회의 군(郡) 단위 개최 파급 효과

전라남도체육대회의 군(郡) 단위 개최는 많은 부대효과를 낳았다. 전라남도 스포츠정책의 최대 역점 사업인 군(郡) 지역 스포츠 인프라 구축 및 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준 것이다.

특히, 전라남도체육대회의 군(郡) 단위 개최 확대는 지역 스포츠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등의 효과를 가져다줌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전남체육 진흥에 일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포석에서 출발했다.

전라남도체육대회의 군(郡) 단위 개최 확대는 동·하계전지훈련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큰 효과로 나타났다. 먼저 2013년 하계전지훈련(7. 1~9. 30/3개월) 유치 실적을 보면, 36종목 2,283팀 5만 3,644명, 연인원 25만 3,316명이 우리 도를 찾았다. 당초 목표 대비 인원은 124%, 연인원은 63%가 증가했다. 경제효과는 무려 256억원 이었다. 직접효과가 180억원, 간접효과가 76억원이었다.

특히, 경제효과는 2010년 117억원에서 2011년 137억원, 2012년 151억원, 2013년 무려 256억원으로 꺾춤 뛰었다. 여수, 강진, 구례, 영광, 순천이 전체 인원의 71%를 차지하며 상위 5개 시(市)·군(郡)으로 랭크됐다. 최근 10년 이내 전라남도체육대회를 첫 개최한 바 있는 강진, 구례, 영광군의 상위 랭크는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2014년 동계전지훈련의 성과 역시 엄청났다. 40종목 2,302팀, 8만 6,468명, 연인원 57만 5,589명이 우리지역에서 기량을 갈고 닦았으며 경제효과는 무려 583억 1,400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여수, 광양, 순천, 해남, 강진이 상위 랭크에 위치했다. 이 중 전라남도체육대회 첫 개최지 강진군이 숙박시설 및 스포츠인프라 열세를 딛고 상위권을 차지했다.



위에서 보듯, 전라남도는 전라남도체육대회의 군(郡) 단위 개최 확대를 통해 전지훈련팀 유치에 나섰고, 고스란히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 스포츠를 통해 돈을 벌어들인 셈이다.

전라남도체육대회의 군(郡) 단위 개최는 해당 군(郡)의 먹거리와 자연풍광을 맘껏 홍보해냈다. 2013년 장흥군의 경우, 우리나라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은 물축제 홍보는 물론 장흥한우, 편백나무숲, 우드랜드 등을 널리 알렸다. 2012년 구례군도 산수유축제, 화엄사 등을 널리 홍보할 수 있었고, 2010년 화순군도 파프리카 등 지역 특산물 판매의 호기로 삼았다.

참가자들마다 “장흥, 구례, 화순 등이 참으로 좋은 곳이구나!”라며 연일 감탄사를 연발해 냈고, “다시 찾고 싶은 고장”이라고 되뇌게 됐다. 이와 같은 성과는 전라남도체육대회의 군(郡) 단위 개최효과를 톡톡히 보여준 지표라 하겠다.

이처럼 동·하계전지훈련의 대폭적인 성장세에 대해 전라남도는 전라남도체육대회의 군(郡) 단위 개최 확대를 통한 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스포츠에 대한 인식 변화, 여기에 전지훈련 마케팅 향상으로 중국, 일본 등 해외 전지훈련팀 증가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더 많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해 스포츠 기반시설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각종 전국·국제대회를 유치하는 등 전남이 동계 훈련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그리고 효과가 크게 나타난 만큼 전라남도의 전라남도체육대회 군(郡) 단위 개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라남도체육대회의 군(郡) 단위 개최가 ‘전남체육(體育)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 자신한다.





### 13. 전국체육대회 개최

#### 전남 체육의 변화상

전남은 1945년 8월 체육회가 창립한 뒤부터 꾸준히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배출하며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배출 창구 역할을 해왔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만 해도 김원기·김영남·안한봉(이상 레슬링), 서향순·김조순(이상 양궁), 김동문·이용대(이상 배드민턴), 여갑순(사격), 조민선(유도), 정국현(태권도), 김동성(빙상)을 비롯해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구기종목 사상 첫 2연패를 이룬 여자 핸드볼의 주축들도 상당수가 전남 출신들이었다.

지금까지 올림픽에서 전남출신이 딴 메달만도 금 20개, 은 11개, 동메달 11개에 이를 정도다. 하지만 2014년 3월 현재 전남도청을 비롯해 14개 시·군에서 22개 종목을 육성하고 있을 뿐 제대로 된 실업, 대학팀이 없는데다 엘리트 스포츠 저변도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여서 전략종목조차 연계육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1986년 광주·전남 분도 이후부터 이어져온 추세였다. 따라서 전남 체육의 전환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전국체육대회 성적

(1986년 광주·전남 분리 이후)

개최 연도	횟수	개최 장소	개최 종목	종합성적	비 고
1986년	67회	서울·부산·경기	34	2위 (47,315점)	
1987년	68회	광주·전남	34	8위 (33,927점)	
1988년	69회	부산 개최	34	(서울올림픽 개최로 종목별 시상제)	
1989년	70회	경기·서울	34	7위 (32,392점)	
1990년	71회	충북	35	8위 (29,973점)	
1991년	72회	전북	35	8위 (31,724점)	
1992년	73회	대구	35	7위 (35,526점)	
1993년	74회	광주	35	10위 (32,015점)	
1994년	75회	대전	35	11위 (29,347점)	
1995년	76회	경북	35	9위 (33,274점)	
1996년	77회	강원	35	9위 (32,912점)	
1997년	78회	경남	36	11위 (32,358점)	
1998년	79회	제주	36	8위 (36,540점)	
1999년	80회	인천	36	11위 (31,837점)	
2000년	81회	부산	38	11위 (32,765점)	
2001년	82회	충남	38	10위 (34,126점)	
2002년	83회	제주	40	12위 (35,803점)	
2003년	84회	전라북도	40	7위 (38,441점)	
2004년	85회	충청북도	41	7위 (38,829점)	
2005년	86회	울산광역시	41	9위 (37,759점)	
2006년	87회	경상북도	41	8위 (37,780점)	
2007년	88회	광주광역시	41	12위 (35,112점)	
2008년	89회	전라남도	42	3위 (54,697점)	
2009년	90회	대전광역시	44	10위 (37,799점)	
2010년	91회	경상남도	44	10위 (30,091점)	
2011년	92회	경기도	45	11위 (28,065점)	
2012년	93회	대구광역시	45	12위 (28,471점)	
2013년	94회	인천광역시	46	13위 (27,295점)	

## 전국체육대회 유치 배경

전국체육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 행사”로 그동안 올림픽 등 많은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함은 물론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줬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시·도, 특히 시·도체육회에서는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학수고대한 상황이었다.

전라남도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국민의 정부’ 하에서 대한체육회가 전라남도 개최를 타진해온 바 있으나, 전라남도는 열악한 체육시설 인프라에 따른 많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난색을 표명했다.

실제로 2002년 2006년 제87회 전국체육대회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전라남도보다 여건이 좋은 경기도와 경상북도와와의 경쟁은 물론 주경기장 등 미비, 체육시설 건립 공사기간의 장기간 소요 판단, 그리고 대회 개최에 따른 투자 예산 확보 어려움 등이 예상돼 대회 유치를 취하여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에 소재했던 전남도청 청사가 남악신도시로 옮겨오면서 새로운 전라남도의 시대를 열었으며, 전라남도는 도민의 역량 결집과 우리 道 홍보의 절대적 역할을 해줄 것이 확실시된 전국체육대회의 개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결집을 통해 2003년 4월 전국체육대회 전남도 유치 대응방안 분석을 시작으로 5월 유치 결의(03. 5. 6, 전남체육회 이사회 의결)에 이어 곧바로 2003년 5월 23일 대한체육회에 2008년 제89회 전국체육대회를 유치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 2008년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확정

전국체육대회는 유치 신청한 시·도간의 경쟁을 통해 개최지가 확정됨에 따라 전남도는 동 대회를 유치 신청한 대구광역시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여야 했다.

우선적으로 전남도는 도, 도교육청, 도체육회 및 중앙에서 활동하고 있는 체육 관련 인사를 중심으로 전국체전 유치 기획단을 구성하여 대한체육회 전국체전위원회과 이사들을 상대로 전라남도의 전국체전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해 나갔다.

이와는 별도로 전라남도는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체육회 방문 및 임원과의 접촉을 통해 전라남도의 개최 당위성을 설득함으로써 양보를 기대해 나갔다.

다시 말해 1986년 광주·전남 분리 이후 독자적으로 전국체전을 개최하지 못했던 전라남도로서는 체육 인프라 확대와 지역체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유치가 필요함을 주장해 나가면서 대구광역시의 자진철회를 설득해 나갔다.

이러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추진한 결과 경쟁 상대였던 대구광역시가 2008년 89회 유치를 포기하고, 2012년 대회로 유치 계획을 조정함에 따라 전라남도는 2004년 5월 25일 마침내 제89회 전국체전 개최지로 최종 결정되기에 이르렀다.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추진 과정

일시	주요내용	주관부서	비고
2003. 05. 06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의결	전남체육회 제212차 이사회	
2003. 05. 23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신청	전남체육회 → 대한체육회	
2003. 07	유치기획단 구성	-	
2004. 05. 25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전라남도 개최 결정	대한체육회	

### 제89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준비 및 추진

전라남도는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유치가 최종 확정되자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05년부터 체육업무 담당부서인 관광문화국 체육지원과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전국체전 시설 조사 및 배정 등 기본 실무 작업을 추진하였다.

2007년 1월 T/F팀 구성과 7월 전국체전기획단을 발족하여 기본계획에 의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대회조직위원회 구성, 경기장 개·보수 등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 대회재정

광주·전남 분리 이후 ‘녹색의 땅’ 전남에서 사실상 처음 개최된 것으로 타 시·도에 비해 경기장이나 경기용구가 노후화되어 어려움이 많았으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경기장 시설을 확충하여 ‘경제체전’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재정운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 비	기 금	특별교부세	도 비	시·군비
계	76,993	23,000	3,500	8,000	23,214	19,279
대회운영비	16,860		3,500		13,360	
경기장 개보수비	60,133	23,000		8,000	9,854	19,279

## 대회 콘셉트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의 땅 전남의 이미지에 맞는 친환경 「녹색체전」을 콘셉트로 개최되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을 전국 최초로 체육행사에 접목함으로써 행사에 있어서도 환경을 중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 주요 내용

- 친환경적 개·폐회식 연출
  - 화약냄새와 공해를 유발하는 축포, 불꽃놀이를 폐지하고 워터캐논(물대포)으로 연출
-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 중립체전(경기장 주변 나무심기 운동 전개)
-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장 환경 조성
  - 경기장마다 피톤치드 방(편백나무, 대나무 숲) 설치
  - 일회용품 줄이기, 쓰레기 줄이기 운동 전개
  - 신설경기장 주차장 노면을 잔디블록으로 시공
- 녹색의 땅 전남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수산물과 함께하는 전국체전
  - 개최식 관람객 및 임원·선수단에게 친환경 농수산물 제공
  - 양파음료, 떡, 쌀 솔트, 김, 미역, 남도장터 상품권, 우리밀 등

특히, 2012세계박람회 개최 도시인 여수시를 주 개최지로 함으로써 세계 박람회를 중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 경기장 운용

전라남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사후 활용도 등을 감안하여 경기장의 신설을 최소화하고, 기존 체육시설을 공·승인 규정에 맞도록 개·보수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경기장 시설을 갖추는데 중점을 뒀다.

따라서 전라남도는 도 전역의 체육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공·승인에 지장이 없는 시설, 안전에 문제가 없고 공사범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경기장, 도대표 선수를 육성하는 지역의 경기장을 우선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기초조사 결과 총 42개 종목의 경기를 치루기 위해서는 62개의 경기장이 필요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고, 다만 종합사격장 등 3개 경기장은 신설, 시설이 양호한 광양공설운동장 축구장 등 12개 경기장은 그대로 사용, 나머지 47개 경기장은 보수하여 사용키로 했다.



종합사격장

국제필드하키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진남경기장

전남사이클경기장

여수 소호요트장



## 주요 시설

- 신설 경기장 현황
  - 전라남도종합사격장, 목포 국제필드하키장, 나주 인라인롤러경기장
- 주요 개·보수 현황
  - 진남경기장 스포츠센터 건립 및 관람석 증축, 소호요트장 경기장 클럽하우스 건립, 순천팔마테니스장 하트코드 조성, 영산호카누경기장 정고장 및 사무실 건립, 장성호 조정경기장 정고장 및 사무실 건립 등
  - ※ 노후한 경기장은 경기운영 및 향후 도대표 선수들의 훈련장 활용을 고려하여 개·보수 추진

## 대회 운영 총평

제89회 전국체육대회(2008. 10. 10 ~ 16 / 7일간)는 42개 종목 3만여명의 임원·선수 및 해외동포 선수가 참가하였으며, 전라남도는 각 종목별 경기장 및 행사장에 자원봉사자 및 경기보조요원을 선발 배정하여 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전라남도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전라남도 각 종목별 임원·선수가 흠뻑새를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당부하고 스포츠맨십에 의거 페어플레이하도록 함으로써 전국체전 역사상 단 한 건의 소청도 없는 매끄러운 대회로 운영하여 대한체육회 및 시·도 선수단으로부터 가장 모범적인 대회로 평가받았다.

전국체전의 모범적 개최를 통해 전남도는 이미지 제고는 물론 각종 전국대회와 동·하계 전지훈련지로 연결지어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77년 광주·전남 분리 이전 광주시를 주 개최지로 개최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16개 시·도와 16개 해외동포선수단 3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친환경 「녹색체전」을 콘셉트로 개최함으로써 임원·선수단의 심리적 안정을 가져와 어느 대회보다도 풍성한 기록과 감동을 남겼다. 세계신기록이 2개, 한국신기록이 42개, 대회신기록이 147개가 쏟아졌다. 성적면에서도 우리 전남은 광주·전남 분리 이후 22년만에 처음으로 종합순위 3위를 달성하였다.

특히, ‘녹색의 땅’ 전남의 친환경 이미지를 스포츠행사에 처음으로 접목 시킴으로써 전남의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해 나가는 정책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17개 시·군 분산 개최로 이동에는 다소 불편하였으나, 선수단에게 도내의 친환경 지역특산품을 제공, 전남의 따뜻한 정을 전달하였고, 음식·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 없이 남도의 온화한 인심이 그대로 묻어난 '인정체전'으로 만들어졌다.

이밖에 사실상 처음 개최로 타시·도에 비해 경기장이나 경기용구가 노후화 되어 어려움이 많았으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경기장 시설을 완벽하게 확충하였다.



### 개최 성과

무엇보다도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가져다주었다. 생산유발은 1,639억원, 고용유발은 8,619명,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747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로는 첫째 국가적 측면의 기대효과에서 국민적 대통합과 화합 촉진의 기회 마련, 각 지역간 교류확대와 이해의 공감대 조성, 새로운 스포츠 인재 발굴·육성 및 국민체육진흥, 선진 국민의식 함양과 건전한 스포츠 정신의 배양의 성과를 가져다주었다.

지역적 측면의 기대효과에서는 전남 이미지 홍보 및 브랜드화,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으로서의 자신감과 자긍심 배양, 범도민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새로운 지역 환경정비 개선, 현대화된 지역체육시설 인프라의 확충, 지역의 우수선수 육성 및 생활체육의 균형적인 발전에 도움을 가져왔다.

체육회 및 육상, 수영 등 가맹경기단체로서는 41억여원에 이르는 종목별 경기용 기구 구입에 따른 새롭고 첨단화된 훈련장비를 마련할 수 있었고, 이는 곧 우수선수 발굴 및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초석으로 자리매김했다.

31년만에 2008년 제89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전라남도로서는 사회, 경제, 체육적으로 볼 때, 또 다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변곡점으로 작용했다.



## 14. 동·하계 전지훈련팀 유치 및 전국단위 대회 개최

스포츠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제도 전반에 걸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사회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건강관광, 체험관광과의 접목으로 스포츠관광이 보편화되고 있다.

전지훈련은 대체로 시즌이 끝난 후 선수들의 기분전환과 체력 및 기술

향상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일정기간 체류하며 하는 훈련이다. 최근 전지훈련이 참여형 스포츠관광으로 지역고유의 특성이나 자연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커져가는 ‘틈새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운동선수들의 체력보강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지훈련은 주로 해외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기후조건이 좋고 훈련경비도 저렴한 남쪽지방을 선호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지훈련팀이 전라남도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전국 평균보다 10%, 수도권보다 20%이상 많은 일사량뿐만 아니라 겨울철 온화한 기후에 눈·비·바람이 적기 때문이다. 게다가 산소·음이온이 풍부한 청정한 공기, 미네랄을 다량 함유한 물, 게르마늄이 풍부한 해변이 있어 전지훈련지로는 최적지라 할 수 있다.

또한 전지훈련과 각종 전국대회를 전라남도로 유치하기 위해 도내 전 시·군에 있는 운동장(축구장 포함), 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부대시설 확충 등 주변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중앙정부나 대한체육회, 중앙정부나 대한체육회, 중앙경기단체를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등 수도권지역 국가대표 선수단 등 유치에 노력하였다.

### 스포츠인프라 확충

국내·외적으로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대되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체육 인프라시설 확충 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여가 시간증대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장소 제공 요구가 많아지고 있고 있는 실정이다.

스포츠 인프라시설 확충사업을 지역발전의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450,993백만원의 투자로 운동장 24개, 체육관 56개(구기, 투기, 생활체육관 포함)를 완공하였다. 최근 5년간 광특 사업비 75,248백만원을 종목별 경기장, 생활체육공원 건립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지원하여 왔다.

공공체육시설 광특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3	2012	2011	2010	2009
계	75,248	14,064	14,660	15,028	13,460	18,036





### 동·하계전지훈련 및 전국규모대회 유치 성과

전지훈련팀 유치는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매우 크고,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이 어려운 군 단위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에서는 전국의 선수단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신설 및 확충으로 전지훈련팀 수용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그리고 방문팀에 대하여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관광지 관람료 할인, 숙박·음식·교통 안내 등 담당공무원 지정 등 많은 혜택을 제공하였다.



특히, 유치효과가 큰 종목별로 연중 대회참가 일정 파악 및 격려·서한문과 함께 안내책자도 발송하였다. 최근 5년간 전지훈련 유치 실적은 39개 종목, 14,355팀 410천명(연인원 3,209천명)을 유치하여 3,249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모하였다.

최근 5년간 전지훈련 유치실적

(단위 : 천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연 인 원	3,209	515	666	563	664	801
인 원	410	39	94	66	83	128
유치종목	39	27	37	32	37	39
팀 수	14,355	1,600	2,864	2,411	2,757	4,723
경제효과	3,249	521	675	569	672	812

또한 매년 300여개의 전국규모대회를 유치하여 1천억원의 지역경제효과를 거두었다. 동시에 전남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다. 특히, 국가대표 선수단 유치는 “스포츠 메카”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홍보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시설투자와 전지훈련 유치 등 성과를 토대로 스포츠산업을 “황금알을 낳는 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산업클러스터 구축, 웰빙·리조트형 전지훈련촌 조성,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웨이트트레이닝장 건립, 관광연계상품 개발, 문화·IT산업 등 연관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 해 나갈 계획이다.

## 15. 국제 해양레저 스포츠대회 추진

전남은 우리나라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기후가 대체로 온화할 뿐만 아니라



2,219개의 섬, 6,475km에 달하는 광활한 리아스식 해안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어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 국제 해양레저스포츠대회 추진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천혜의 자연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요트대회」, 「국제 파워보트대회」 등 국제적인 해양레저스포츠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해양관광의 협력 및 교류를 확대하여 동북아 해양관광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2009년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0년부터는 매년 전라남도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서로 오가며 국제요트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해양레저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서남해안 다도해를 중심으로 「다도해 국제요트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남의 크고 작은 섬들과 요트, 바다경관이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모습 등 우리지역의 해양관광자원을 국내외 참가자와 관람객 등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2012년부터는 목포 앞바다에서는 극한의 도전과 스릴을 느낄 수 있는 「국제 파워보트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함께 전남을 스피드 스포츠 메카로 발전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2013년에는 국제모터보트협회(UIM) 총회가 개최되는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2015년 국제모터보트협회 정기총회의 전라남도 유치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 국제 해양레저스포츠대회 성과

국제적인 해양레저스포츠대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최함으로써 해양레저를 즐기는 동호인 수가 증가하고,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기반시설이 확충되는 등 우리 지역의 해양레저 스포츠를 더욱 활성화 시켰고, 나아가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도내 레저선박(요트, 보트) 제조업체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또한 섬과 리아스식 해안 등 천혜의 자연 경관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한편, 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수요를 창출하여 관광수입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다도해 국제 요트대회



국제 파워보트대회

## 16. 테마 섬 개발사업 추진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국내 관광패턴 변화와 중국경제의 급성장으로 관광수요의 증가는 물론 관광행태도 크게 바뀌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전라남도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개통 이후 크게 증가한 수도권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배후지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중국 관광객 유치 선도지역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새로운 관광축으로 체계적인 육성이 절실하다.

### Galaxy Islands Project(섬 개발 계획)

전라남도는 천혜의 해양 관광자원으로 6,475km에 달하는 리아스식 해안선과 게르마늄이 다량 함유된 갯벌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2,219개의 크고 작은 섬들은 전남만의 특성 있고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이다.

섬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전라남도는 2005년에 ‘Galaxy Islands Project’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까지 1조 1,999억원(민자포함)을 투입 개발 잠재력이 큰 서남해안 다도해의 40개 섬을 4개 클러스터로 나누고, 동물 휴양, 명상, 전망, 건강, 가족, 생태 등 15개 테마로 특성화 하여 친환경 테마 섬을 개발 할 계획이다.

- 전 남 섬 : 2,219개(유인도 296개, 무인도 1,923개, 전국 3,409개의 65%)
- 해안선길이 : 6,475km(전국의 46%)
- 갯벌면적 : 1,037km<sup>2</sup>(전국의 42%, 세계 5대 갯벌에 속함)
- 바다면적 : 26,450km<sup>2</sup>(전국의 37%)

지속가능한 전남 섬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2005~2016년까지 섬 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6년까지 섬 4개 클러스터, 15개 테마, 40개 섬에 1조 1,999억원을 투자하여 공공시설(선착장, 진입도로, 전망데크, 수변데크 등)과 민자시설(펜션, 리조트, 복합휴양센터, 해양레포츠시설 등)하여 섬 별 특성화 개발로 관광자원화 할 계획이다.

테마 섬 개발(4개 권역 15개 테마 40개 섬) (단위 : 천명, 백만원)

권역별	테마 별	도서 명
4개 권역		40개 섬
소계		15섬
신안 · 영광 권역	표-참조-	자은도, 말목도, 도초도, 비금도, 우세도, 송탄도, 토막도, 상수치도, 안좌도, 상사치도, 증도, 기점도, 노대도, 장재도, 송이도
소계		8섬
진도 · 해남 권역	표-참조	상 · 하조도, 나배도, 옥도, 판매도, 접 , 불도, 작도도, 녹도
소계		6섬
완도 권역	표-참조-	보길도, 명 섬, 노화도, 횡간도, 소안도, 신지도
소계		11섬
여수 · 고흥 권역	표-참조-	사도, 낭도, 백야도, 상화도, 하화도, 거문도, 백도, 금오도, 시호도, 진지도, 우 도

※ Galaxy Islands 업무표장등록(2007. 4. 3 특허청)

### 테마섬 개발 현황

테마섬 개발은 현재 6개 시·군, 21개 섬 개발에 2014년까지 1,056억원 투자하여 기반시설 확충으로 섬 관광자원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2014년 2월 테마섬 개발을 지역위 특화발전 프로젝트(서남해안 해양관광산업) 사업으로 제출하였다.



테마 섬 개발

테마섬 개발사업 추진 현황(총괄 40개 - 완료 12, 추진중 9, 이후 19)

구분	위 치			테 마 (15개)	사업내용	사업비(억원)				비고	
	시군	읍면	섬			계	국비	지방비	민자		
계						11,999	11,999	873	8,817		
신안 · 영광	신안 (14)	소계				5,497	5,497	703	3,878		
		지은면	지은도	International Beach Island	국제회의 (NGO 국제본부)	894	894	221	520	미 추진	
		암태면	말목도			30	30			·	
		도초면	도초도	사파리 아일랜드	동물이벤트	403	403	26	238	추진 중	
		비금면	비금도	자연의 섬	등산로, 나만의 섬, 웰빙음식	370	370	139		미 추진	
		·	우세도			15	15			·	
		·	송탄, 토막도			50	50			·	
		·	상수지도			20	20			·	
		·	안좌면	안좌도	파라다이스	해양설치미술, 면세점, 카지노	3,594	3,594	306	3,120	추진 중
		·	상사지도	아일랜드		30	30	5		미 추진	
		·	중도면	중 도	휴양의 섬	갯벌체험	31	31	6		·
		·	기점도	선착장, 노둣길		20	20			·	
		·	비금면	노대도	음악의 섬	부지매입	20	20			'08완료
		·	하의면	장재도	평화의 섬	평화광장	20	20			추진 중
영광(1)	낙월면	송이도	휴양의 섬	갯벌체험	30	30	5		'12완료		
진도 · 해남	진도 (7)	소계				2,116	2,116	12	1,720		
		·	조도면	상 · 하조도	전망의 섬	뒀 출어제, 자전거대회, 국제IT 대회	1,579	1,579	6	1,497	추진중 2
		·	·	나배도			50	50			미 추진
		·	·	옥 도		150	150			·	
		·	·	관매도	음악의 섬	아이 음악대회	218	218	6	158	'11완료
		·	의신면	접 도	명상의 섬	불교명상수련, 철학자 회의	5	5			'06완료
		·	자산면	불 도		84	84		65	'08완료	
	·	조도면	작도도	꽃과나비의섬	선착장, 편의시설	30	30			'08완료	
해남(1)	문내면	녹 도	휴양의 섬	명상공원	15	15			미 추진		
완도	완도 (6)	소계				484	484	19	46		
		·	보길면	보길도	건강의 섬	해병대체험, 윤선도 학습체험, 바다즐기기	162	162	6		추진 중
		·	노화읍	명 섬			63	63	1	40	
		·	·	노화도			108	108	6		추진 중
		·	소안면	황간도		68	68	6		미 추진	
		·	·	소안도	어촌체험의 섬	전국 어촌체험축제	83	83		6	'07완료
		·	신지면	신지도	등산해변의섬	상산탐방로					미 추진
여수 · 고흥	여수 (8)	소계				2,575	2,575	5	2,300		
		·	화정면	사도 · 낭도	생태의 섬	청소년 이벤트	2,211	2,211		2,120	미 추진
		·	·	백야도	가족의 섬	가족 문화이벤트	266	266	5	160	추진 중
		·	·	상 · 하화도	꽃의 섬	꽃대회, 향기 축제	58	58		20	추진중 2
		·	삼산면	거문도 · 백도	역사문화체험, 공원조성	역사체험공원 인어해양공원	20	20			'11완료
		·	남 면	금오도	등산의 섬	비렁길 체험	20	20			'09완료
	고흥 (3)	소계					102	102			
		·	동일면	시호도	원시체험 섬	무인도 체험	15	15			'12완료
		·	과역면	진지도	바다낚시의 섬	낚시대회	15	15			'10완료
		·	남양면	우 도	가족의 섬	갯벌체험	72	72			'13 완료
공통				안내표지, 조명, 홍보, 투자포인트(시범지구) 토지매입		1,180	1,180	129	873		

## 성과

섬 관광개발로 인한 투자지출과 섬 관광으로 인한 소비지출이 전남지역 외에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때 전남지역에 한정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산하기는 어렵다.

다만 생산파급효과는 섬 관광개발로 인해 21,472억원, 섬 관광으로 인해 17,329억으로 총 38,801억원의 생산파급효과 예상된다. 소득파급효과는 섬 관광개발로 인해 5,416억원, 섬 관광으로 인해 3,815억원으로 총 9,231억원으로 예상된다. 고용파급효과는 섬 관광개발로 인해 55,435명, 섬 관광으로 인해 91,030명으로 총 146,465명의 고용파급효과 예상된다. 부가가치파급효과는 섬 관광개발로 인해 8,964억원, 섬 관광으로 인해 7,635억원으로 총 16,599억원의 부가가치파급효과 예상된다.

## 17.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 추진

###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인증 추진경과

슬로시티는 1999년 이탈리아의 그레베 인 키안티에서 시작된 느린 마을 만들기 운동이다. 개발 대신에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자연환경과 전통을 지키면서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살리기 운동이다. 2001년 그레베시가 슬로시티로 공식 선언한 이후 유럽의 각 도시들이 동맹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1월 학자·연구자·기업가 등 민간활동가를 중심으로 한국슬로시티추진위원회(위원장 손대현)가 결성되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전라남도는 2007년 4월 담양군, 보성군, 장흥군, 신안군이 슬로시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7월 완도군이 추가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슬로시티 국제연맹은 2007년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로베르토 안젤루치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하여 현지실사를 하였다. 총 24개 평가항목에 의거한 현지실사와 서류심사를 거쳐, 2007년 12월 1일 이탈리아 그레베 인 키안티에서 개최된 제1회 슬로시티 국제연맹 총회에서 담양 창평, 장흥 유치·장평, 완도 청산도, 신안 중도 등 4개 지역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인증하였다.



###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 추진

전라남도는 2008년도에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슬로시티 아름다운 걷기 여행 실시, 일본 후지TV·여행사 관계자 팸투어, 홍보물 제작 등을 추진하였다.

2009년도부터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2014년까지 21,830백만원(국비 : 지방비 = 50 : 50)이 투자되어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하였다.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지역별로 방문자센터를 건립하였고, 한옥 민박 26동을 신축하고 16동을 개보수 하였으며, 슬로길 124km를 정비하였다. 또한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저탄소 교통수단인 전기차와 전기자전거, 마차 등을 확충했다

슬로시티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와 지도를 제작하고 슬로시티에 얽힌 이야기를 발굴하는 스토리텔링 용역도 실시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100회에 걸친 주민 교육과 여행사 팸투어 등을 통해 관광상품을 개발하였다.



관광자원화사업 국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10,915	3,700	3,650	1,200	1,125	940	300
도	625	185	340	100	-		
담양	3,008	953	1,315	300	125	165	150
장흥	2,193	953	715	250	125	150	
완도	2,241	656	565	250	450	170	150
신안	2,848	953	715	300	425	455	

관광자원화사업 지역별 추진사업

지역별	시설사업 (2009-2010)	경상사업 (2009-2013)
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지천 체험관 건립(방문자센터)</li> <li>· 삼지천 복원사업</li> <li>· 안내간판 설치, 대문정비</li> <li>· 명품 돌담길 및 수변공간 조성</li> <li>· 한전주 지중화 사업</li> <li>· 싸목싸목 탐방로 개설</li> <li>· 전기차 구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달팽이 시장 운영</li> <li>· 관광상품 및 주민 아카데미 운영</li> <li>· 고택 활용 문화사랑방 운영</li> <li>· 달팽이학당 운영</li> <li>· 창평 슬로푸드 명품화 및 축제</li> <li>· 스토리텔링 사업</li> <li>· 스마트 어플 개발</li> </ul>
장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슬로시티 비지센터 건립</li> <li>· 유기농체험센터 건립</li> <li>· 장수풍덩이 체험관 건립</li> <li>· 생태 탐방로 정비</li> <li>· 산촌 예술 문학당 건립</li> <li>· 한옥민박 신축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토리텔링 연구용역</li> <li>· 체험상품 개발 연구용역</li> <li>· 유기농 김장담그기 행사 개최</li> <li>· 역사자원 조사 및 스토리텔링 제작</li> <li>· 슬로푸드 상품개발 지원</li> </ul>
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안내판 제작</li> <li>· 전통농가 민박 개보수 지원</li> <li>· 느림섬 여행학교 건립</li> <li>· 슬로길 관광안내판 제작</li> <li>· 전기차, 전기자전거 구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슬로우 걷기 축제 지원</li> <li>· 슬로시티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li> <li>· 스토리텔링 연구용역</li> <li>· 슬로시티 체험길 지도 제작</li> <li>· 슬로푸드 상품개발 지원</li> </ul>
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섬 일주 슬로워킹코스 개발</li> <li>· 체험민박시설 개보수</li> <li>· 슬로시티 방문자센터 리모델링</li> <li>· 슬로푸드 체험장 건립</li> <li>· 종합안내판 제작</li> <li>· 조랑말, 마차 구입</li> <li>· 차없는 섬 주차장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도 이야기 지도 제작</li> <li>· 스토리텔링 연구용역</li> <li>· KBS, MBC 다큐멘터리 제작</li> <li>· 관광상품 운영 및 팸투어</li> </ul>

## 슬로시티 재인증 평가

국제슬로시티연맹의 슬로시티 현장에 따라 가입 후 매 5년마다 재인증 검증절차를 거치게 된다. 2007년 12월에 지정된 전라남도 4개 슬로시티는 국제슬로시티연맹에 환경정책, 기반시설 정책 등 6개 분야 52개 항목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했다.

국제슬로시티연맹은 '13. 5. 9 담양 창평 슬로시티와 완도 청산도 슬로시티의 재인증을 허가하고 신안 증도 슬로시티는 심사 서류를 재작성해 2014. 4. 5까지 재인증 신청을 위해 심사 보류했고 장흥 유치·장평 슬로시티는 회원자격 상실을 통보해 왔다

국제슬로시티연맹의 평가 결과를 보면 신안 증도 슬로시티는 국제연맹 승인 없이 민박, 식당, 특산품 등에 슬로시티 로고 무단 사용 사례와 슬로시티 지정 이후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해 슬로시티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흥 유치·장평 슬로시티는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슬로시티에 대한 인식 향상 노력이 미흡하고 주민 위주가 아닌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성격의 협의체가 운영을 맡고 있어 애초 지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라남도에서도 신규 인프라 구축과 관광객 유치에만 행정력을 집중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슬로시티 이념을 준수하면서 유럽형이 아닌 한국형(전남형) 슬로시티 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장흥 유치·장평 슬로시티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슬로시티 지정을 포기하였고 신안 증도 슬로시티는 재인증 심사 서류를 작성해 2014. 4. 5까지 국제슬로시티연맹에 재인증 신청할 예정이다.

## 슬로시티 재인증 평가

슬로시티 지정 이후 각종 홍보활동 결과 방문객이 6배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대도시와 인접해 있는 담양 창평 슬로시티는 관광객이 지정 이후 34배 증가하였다.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를 활용한 지역홍보로 지역 브랜드 가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특산물 판매를 위한 상표등록 출원(56건), 사회적 기업 인증(1개소) 등 주민들이 스스로 슬로시티를 가꾸어 나가고, 소득향상과 연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주민 자립형 슬로시티로 거듭나기 위해 그동안 (사)전남슬로시티협의회 산하 각 지회를 운영하였으나 지역별로 법인을 설립해 자주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연도별 슬로시티 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254,866	429,610	625,796	1,187,030	1,378,900	1,297,392	1,511,612
담양	5,000	12,240	25,254	73,500	100,450	151,270	170,502
장흥	50,000	75,000	72,000	97,000	124,350	130,760	161,120
완도	92,839	112,234	155,812	248,530	331,000	313,138	369,021
신안	107,027	230,136	372,730	768,000	823,100	702,224	810,969

※ 지정이후 6배 증가, 전년 대비 214천명(16.5%) 증가

담양 창평은 주민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회에 걸쳐 슬로라이프 아카데미를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한과와 쌀엿 등 마을 명인 20명과 빈도림 생활공방, 약초밥상 등 20명의 달팽이학당 주민교사를 발굴 육성하는 등 주민 주도형 슬로시티로 발돋움하고 있다

완도 청산도의 슬로길은 2011년 국제슬로시티연맹이 공식 인정한 '세계슬로길 제1호'로 지정되어, 2009년부터 슬로우걷기 축제를 4월 한달 동안 개최하고 있다. 2013년 국가중요농업유산 1호로 지정된 구들장논과 독살은 섬 주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

특히, 폐교를 수리해 느린섬 여행학교를 개설('12.3.27)하여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였다. 그리고 주민공동체에 슬로푸트 체험관, 숙박시설운영 등을 위탁하여 연간 24천명의 관광객이 이용해 282백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신안 증도는 사회적기업인 '1004 길벗 주민여행사'를 설립해 슬로시티 증도만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객에게 민박과 식당을 연계시켜 206백만원의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길벗 여행사 운영사례는 2011년도 한국관광공사에서 주체한 '창조관광사업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한국생태관광협회 생태여행상품인증제에 '느려서 더 행복한 여행', '미션, 갯벌생태여행'의 상품이 공식인증 받았다.

## 18. 이름없는 섬 이름 지어주기

섬 이름 지어주기란? 도내 소재한 섬 중에서 이름이 없는 섬을 찾아 특색 있는 이름을 부여하고 각종 지도 등에 표기함으로써 섬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자체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도 등에 정확한 지명을 표기하여 올바른 섬 정보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하고, 섬 이름 유래 및 각종 천혜의 섬 자원 조사·홍보 등으로 섬 관광 자원화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사업은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로 12개 시·군에 이름은 있으나 미고시된 섬 545개, 이름도 없고 미고시된 섬 378개 등 총 923개의 섬이 대상이다.

아름답고 보존가치가 많은 섬에 특색 있는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천혜의 관광자원인 남도의 섬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국제적으로 자국의 영토분쟁이 잦은 점을 감안 시 영유권 보호의 역할도 할 것으로 생각된다.

<b>先州日報</b>	2013년 1월 10일(목) [종합] 2면	
<b>전남 섬 400곳, 특색있는 이름 지어준다</b>		
<p>전남의 이름없는 아름다운 섬 400여 곳이 새 이름을 갖게 된다. 전남도는 9일 "전국 최초로 '이름없는 섬, 이름 지어주기' 사업을 추진, 천혜의 자원인 섬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관광자원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이에 따라 전남지역 2219개의 섬 가운데 이름은 있으나 미고시</p>	<p>된 신안 증도면 병풍리 '거명바위섬'을 비롯한 353개의 섬에 대해 현지에서 불리는 섬 고유의 이름이 붙는다. 또 전남도는 이름의 유래와 역사적 근거, 현지 자료 등을 확보해 조사작업을 벌여 왔다.</p> <p>거명바위섬은 섬에 검정문양의 바위가 있어 마을 주민들이 부르는 것이고, 당건도는 양반이 갖</p>	<p>래 받쳐 쓰던 담건과 같다 해서 불리는 등 형태의 특이성이 따른 이름들이 많았다.</p> <p>이 밖에 이름도 없고 미고시된 461개의 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명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아름답고 특색있는 이름을 지어줄 계획이다. /오광복기자 kroh@</p>

**무등일보**

2013년 1월 10일(목) [종합] 1면

## 전국 최초 '무명섬 이름 지어주기' 눈길

전남도, 1차 359개 이어 461개 섬 대상

전남도내 이름없는 섬 400여 곳이 고유 이름을 갖게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이름없는 섬, 이름 지어주기' 사업을 추진, 현재의 자연인 섬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관광자원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2천219개의 섬 가운데 이름은 있으나 미고시된 신안 증도면 병풍리 '거명바위섬'

을 비롯한 359개의 섬에 대해 현지에서 불리는 섬 고유의 이름을 부여했다. 이 중 거명바위섬은 섬에 경정문양의 바위가 있어 마을 주민들이 부르는 것이고 '방건도'는 양반이 갯 아래 받쳐 쓰던 방건과 같다 해서 불리는 등 형태의 특이성에 따른 이름들이 많았다.

전남도는 또 이름도 없고 미고시된 461개의 섬에 대해서는 올해부

터 내년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명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이름답고 특색있는 이름을 지어줄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역 실정에 밝은 현지 주민들로부터 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문헌 등 역사적 자료를 다양하게 조사해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름을 최종 확정지를 계획이다. **류성훈기자**

**전남매일**

2013년 1월 10일(목) [광주/전남] 9면

## “‘무명 섬’ 예쁜 이름을 지어요”

전남도 무인도 이름 붙이기 사업 전개

전남도가 이름 없는 무인도에 이름 붙이기 사업을 권다.

전남도는 9일 이름 없는 섬에 이름을 붙여 섬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자원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우선 도내 섬 2,219곳 중 신안 증도면 병풍리 '거명바위섬' 등 현

지 주민 사이에서 불리는 이름을 중심으로 조만간 359개 섬에 고유의 이름을 부여할 계획이다. 섬 이름 유래와 역사적 근거, 현지 자부 등을 토대로 한다.

“거명바위섬”은 검은 바위라는 지역 방언을 토대로, “방건도”는 양반이 갯 아래 받쳐 쓰던 방건과 비슷해 붙여졌다.

전남도는 특히 이름 자체가 없는 섬 461곳은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으로 이름답고 특색 있는 이름으로 짓기로 했다.

작명 절차는 주민 의견 수렴 뒤 해당 시군과 도, 국가 지명위원회 심의와 의견을 거쳐 이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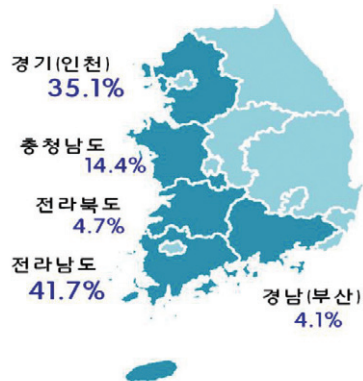
전남도는 이름이 확정되면 지도 표기, 인터넷 서비스, 지명 유래집과 지명사전 등에 게재할 계획이다.

전남지역은 전국 3,409개 섬 중 65.1%인 2,219개를 보유하고 있다.

**/김우규 기자**

## 19. 갯벌도립공원 지정

우리나라의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이며, 전남의 갯벌은 우리나라 전체 갯벌면적(2,489.4km<sup>2</sup>)의 42%(1,036km<sup>2</sup>)를 점유하고 있다.





갯벌은 육상생태계와 해양생태계가 만나는 점이지대(漸移地帶)로서 많은 해양생물과 조류들이 먹이를 섭취하고 번식하는 장소이며, 맨손어업을 통하여 낙지를 비롯한 다양한 어패류를 채취하는 많은 어업인의 생활의 터전이기도 하다.

또한 육지와 해양사이의 완충지(buffer)로서 두 개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기능과 동시에 두 개의 자연환경의 직접적인 충돌을 완화시키고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전남 갯벌의 특징

신안, 무안, 영광 3개 군 갯벌 면적이 636km<sup>2</sup>로 전남 갯벌 면적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50%의 갯벌이 섬갯벌로 이루어져 있다. 서해안의 대조차(大潮差-사리 기간 중 조수의 높낮이가 제일 클 때의 만조와 간조의 높이의 차), 남해안의 중조차 연안 퇴적 환경을 모두 보유하므로 해안환경의 다양성이 다른 곳의 갯벌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라남도 갯벌 분포도

### 갯벌 도립공원과 세계유산 지정

이에 따라 전라남도에서는 자연자원조사(타당성),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08. 6. 5일 전국최초로 무안 갯벌(현경·해제면 일원, 37km<sup>2</sup>)과 신안 갯벌(팔구포·압해·중도지구 일원, 144km<sup>2</sup>)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함께 신안군 지도면에 국립 갯벌연구소 유치 추진, 세계 최고 수준의 보존체계를 구축한 와덴해(Wadden Sea)의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과 갯벌 보존 상호 교류 협력 또한 강화하고 있다.



신안 갯벌도립공원은 갯벌 분포의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면적이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변 환경과도 어울리는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인체에 유익한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 주변의 휴양처(엘도라도 리조트)와도 인접하여 여가활동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 모범사례로 알려져 있다.

### 무안 갯벌도립공원

현재 무안갯벌생태공원을 중심으로 무안갯벌생태센터, 야외학습장, 오토캠핑장 및 캐러밴 등의 시설을 조성·운영하여 체류형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신안 다도해는 세계 최대 생산력을 자랑하는 갯벌과 수많은 섬들로 구성된 복합 생태계로 지역만의 고유한 해양문화 형성과 전통지식이 잘 전승 되고 있다.



### 갯벌도립공원의 발전 방향

갯벌도립공원은 기존의 지정된 랍사습지, 갯벌도립공원, 유네스코 물권보전지역 등과 연계하여 생태관광의 장소로 활용하여야한다.

또한 명소화 사업,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확대 및 관리사업(환경부), 유네스코 자연유산지정 사업(문화부), 유인도-무인도 연계 활용방안(국토부)을 위한 사업 등과 갯벌도립공원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다도해 갯벌은 갯벌생태계 뿐 아니라 다도해라는 독특한 '섬의 군집(island community)'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섬 주민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 이렇듯 다목적(multi-purpose), 다기능적(multi-functional)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생물다양성-생태계의 보전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체계를 갯벌도립공원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도립공원 지정 현황

구 분	공 원 명	지정일	면적(km <sup>2</sup> )	행 정 구 역
	5개소		249	
육 상	조 계 산	'79. 12. 26.	27	순천시
	두 룬 산	'79. 12. 26.	33	해남군
	천 관 산	'98. 10. 13.	8	장흥군
갯 벌	무안갯벌	'08. 6. 5.	37	무안군
	신안갯벌	'08. 6. 5. (확대 '13.12.31)	144	신안군

※ 지정근거 : 자연공원법 제39조, 전라남도 도립공원관리조례 제18조의 6

## 20. 함평 · 담양 양서 · 파충류 생태공원 조성

자연생태형 관광패턴으로의 변화에 발맞춰 전국적으로 나비축제로 널리 알려진 생태도시 함평군에 “뱀”이라는 단일 동물을 주제로 한 생태공원을 조성하였다. 또 담양에는 개구리 생태공원을 조성하였다.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탐방, 자연체험 학습을 위한 생태관광 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생태체험 공간 및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인근 자연 생태공원과 연계해 생태관광의 메카로 육성하여 관광객 유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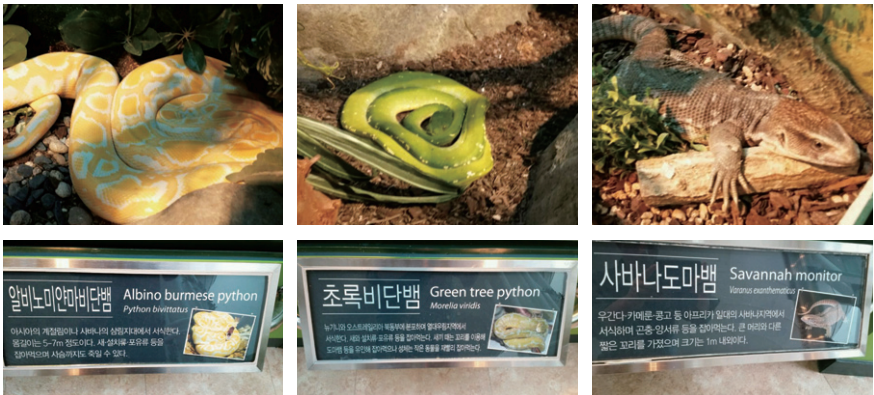
### 함평 양서 · 파충류 생태공원

함평 양서 · 파충류 생태공원은 함평군 신광면 가덕리 424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규모는 부지가 85,000m<sup>2</sup>, 전시관이 2,673m<sup>2</sup>으로 지상2층, 별관으로 구성되었다. 지상 1층에는 한국관, 체험관, 포육 · 치료실과 교육관이 위치하고, 2층에는 사막관, 정글관, 영상관이 위치해 있으며, 별실에는 아나콘다관

(대형뱀관)이 위치해 있다.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은 총 195억원의 예산(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07억원, 특별교부세 10억원, 도비 15억원, 군비 63억원)이 투입되었다. 2008년 7월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기반시설과 전시관공사를 거쳐 전문사육사 채용, 운영조례를 제정(2014.4)하였다. 이후 국내종 뱀 포획(2014.5~6)과 외국종 및 국내종 동물 순치 및 시범운영(2014.7~9)을 거쳐 정식개관(2014.10)할 계획이다.

양서·파충류 수입 및 전시계획은 총 89종 666마리이다. 국내종은 30종 442마리로 이 중 파충류는 무자치 등 16종 137마리이며, 참개구리 등의 양서류는 14종 305마리이다. 국외종은 59종 224마리로 이 중 파충류는 초록 아나콘다 등 50종 188마리이며, 빨간눈 청개구리 등의 양서류는 9종 36마리이다.



전시된 양서·파충류

인근의 자연생태공원, 생태수목원과 통합 운영으로 관람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타 동물원과 교환전시 및 주기적으로 이벤트 행사(공연업체 연계, 뱀쇼, 코브라 쇼 등) 등 특별전을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청 및 학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초중학교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뱀”을 소재로 한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을 조성, 나비엑스포 공원, 자연생태공원과 함께 함평을 생태도시로 육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장기적으로는 “뱀독”을 활용한 신약 개발기반을 마련하였다. 또 환경오염으로 사라져가는 뱀, 개구리 등 멸종위기종 증식과 생태학습·체험 등을 통한 “녹색 전남”의 친환경 이미지 정착에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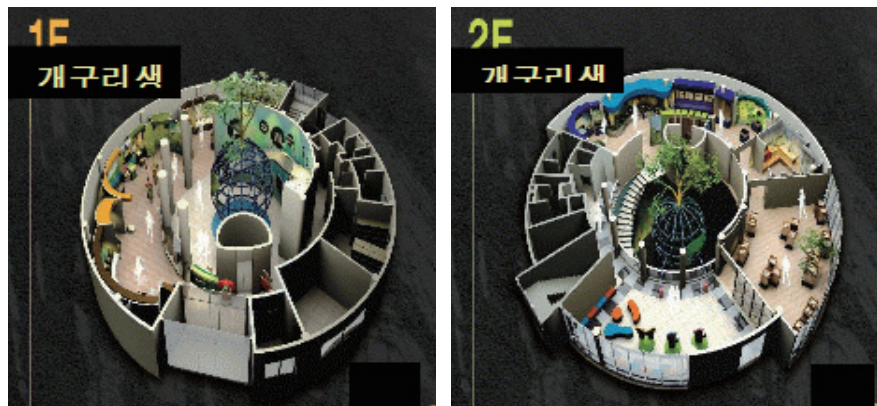
## 담양 개구리 생태공원

2012년 전남 담양군의 생태조사 결과 가마골 생태공원, 추월산 등 담양호권, 담양하천습지, 소쇄원 등에 1급수에만 서식하는 무당개구리와 도롱뇽·참개구리와 맹꽁이 다양한 양서류가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담양군은 물속과 땅위의 환경변화에 민감한 개구리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담양군의 생태도시 정책을 뒷받침할 양서류 생태공원을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은 물론 군이 보유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환경을 홍보하기 위해서였다.

담양군은 개구리 생태공원을 널리 알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연생태 교육장 겸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양서류 서식지를 보전하는 것으로 개구리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축공사와 전시공간 연출 등을 마무리하고 2016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개구리 생태공원은 99,000㎡부지에 전시관과 생태관, 사육실, 야외 체험시설 등이 조성된다. 그리고 전시관은 건축 총면적 약 6,930㎡ 지상 2층 규모로 시설하게 계획됐다.



대상지 선정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합의를 위해 전문가, 환경단체, 행정공무원 등이 2년 동안의 고민으로 2014년 1월 마침내 담양군 담양읍 운교리 홍수조절습지 일원으로 대상지가 선정되었다.

어렵게 시작된 개구리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개구리를 통한 생태관광의 성공을 위해 담양만의



유일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전시관, 생태관, 야외체험시설 등은 너무나 평범한 구성요소에 불과하여 조성 후 활성화를 위해 담양만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 21. 명량대첩축제 개최

### 명량대첩지가 역사를 배우는 장소로 태어나다

정유재란 당시 1597년 7월 원균이 지휘한 조선수군이 칠천량 해전에서 일본수군에 대패하여 서해안으로 일본수군의 진격이 시작됨에 따라 조선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백의종군 중에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임명된 이순신 장군은 장흥 회령포에서 전선 13척을 수습하여 결전을 준비하여 1597년 음력 9월 16일(양력 10. 26)에 울돌목에서 일본수군 133척과 접전을 벌여 31척을 격파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이는 일본군이 수륙병진전략으로 호남을 석권하고 한성으로 진격하려는 의도를 좌절시켜 정유재란을 우리의 승리로 전환시킨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순신이 불과 13척으로 133척이나 되는 일본의 대 함대를 격멸한 해전은 그의 뛰어난 지략과 백성들의 대동단결된 힘을 보여준 것이며, 세계 해전사에 전무후한 기록이었다.





### 울돌목 명랑대첩축제 관광상품화

해남군 화원반도와 진도 사이에 있는 해협이 울돌목이다. 세계 해전 역사상 정유재란 때 이순신이 왜적을 크게 쳐부순 곳이기도 하다. 이순신 장군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다한 백성들의 호국, 희생정신이 있었다. 이러한 명랑대첩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전라남도와 해남군, 진도군이 2008년부터 명랑대첩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3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고 있다.

2013년에는 『진군의 기상! 울돌목의 함성!』이라는 주제하에 9. 27~9. 29일까지 3일간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여 39만명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았다.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중 하나인 해전재현은 울돌목 바다에서 판옥선 13척과 어선을 치장한 100여척의 왜선이 참여한 가운데 실전처럼 재현하였다. 또 하나는 만가행진으로 진도지역의 장례풍습인 죽음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삶의 일부로 바라보는 의식문화를 축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



이외에도 해남 우수영관광지와 진도대교, 진도 녹진관광지를 중심으로 780여개 해남·진도 마을별 진군 깃발을 진도대교에 장식하고, 백성들의 육상

전투장면도 재현하여 416년전 승리의 감동을 관광객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명량대첩의 원혼을 기리는 “평화의 진혼곡-위령씻김굿”과 추모의 만장이 2km에 달하는 만가행렬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500명이 넘는 진도 군민이 8대의 만가와 만장 300여기로 진도대교를 가득 메워 최대의 볼거리를 제공한다. 관광객들로 만장기를 함께 들고 참여토록하여 사라져 가는 우리의 민속 문화를 관광상품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다.



### 충무공을 대표하는 축제로의 도약

짧은 축제 역사에 비해 명량대첩축제는 관옥선의 해전 참여,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출연하는 명량 21품 마당놀이 등을 통해 주민 참여 축제로 자리를 잡았다. 가장 매력적인 콘텐츠인 해전재현 행사로 대한민국에서 충무공 축제를 대표하고 있다.



## 22. 항몽유적지 정비

### 항몽유적지, 용장성과 진도진성

현재 남아 있는 진도 용장성은 1270년 6월부터 1271년 5월까지 약 1년여에 걸쳐 여몽연합군에 맞서 항쟁을 전개하였던 삼별초정부의 최초 거점지였다.

대몽항쟁은 몽고에 항복함으로써 왕권을 회복하고자 한 고려왕실에 대한 불만과 100여년 무인정권의 종언이라는 역사의 흐름에서 출발했다. 배중손, 노영희 등은 최씨 정권의 전위군대였던 삼별초군을 규합하여 왕족인 승화 후손을 왕으로 삼아 고려 왕실에 대립되는 정권을 세웠다. 그리고 고려정권이 몽고와의 강화로 수도를 강화로부터 개경으로 옮기는 것을 계기로 삼별초군은 배 1,000여 척을 이끌고 남하 진도에 입거하여 진도 용장성을 도성으로 정한 것이다. 이러한 용장성의 공간구조는 도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왕궁지와 이를 감싸고 있는 내성과 외성에 해당하는 용장산성의 2중 구조로 되어 있다.

그 동안의 고고학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삼별초군의 진도 입거 전에 이들이 항쟁하는데 기반이 되는 왕궁과 내성, 용장산성 등의 제반 시설이 이미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진도를 도성의 입지로 정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주목되고 있다.

이 밖에 삼별초 관련 유적지로 벽파진, 금갑포, 남도포 등의 포구와 전왕온묘, 배중손 사당, 장항(노루목) 등 전투 관련 유적 등이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진도 용장성은 1964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26호로 지정되었다.

남도진성은 고려 원종때 배중손이 삼별초를 이끌고 진도로 남하하여 대몽항쟁의 근거지로 삼으면서 쌓은 석성이라고 전한다. 그러나 백제 시대에 진도에는 이미 3개의 고을이 존재했으며, 이러한 고을들이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 시대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삼국시대에 이미 성이 쌓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도포에 수군 만호가 처음 생긴 것은 세종 20년의 일로 전해지는데 이를 미뤄보면 현존하는 성은 세종 20년 이후에 쌓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성은 조선시대 수군 진영의 진지로 그 가치가 매우 크게 판단되며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잔존하는 성터의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하여 1964년 사적 제127호로 지정되었다. 지정당시 성터가 부분적으로 잔존하고 동문, 서문,

남문이 남아있었으며 총길이는 610미터에 높이는 5.1미터였다. 1872년에서 1895년 사이에 성내에 30~40호의 민가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 된다.

### 사업추진 배경 및 상황

전라남도는 용장성과 남도진성의 역사적 의미와 그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부 유적지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고증, 유적지 보존관리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계획과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였다.



진도 용장성 왕궁지 전경

용장성은 1985년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198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5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로 건물지, 회랑지, 성벽, 제사유적, 배수로 등 다수의 유적을 발굴하였다.

1984년부터 1985년까지 건물지 석축 정비공사, 1987년 건물지 석축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였다. 1984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 30억과 지방비 14억 등 약 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속적인 발굴조사와 함께 정비 공사를 병행하였다. 그 결과 건물지, 기단, 석축, 배수로 등을 정비하고 주차장과 안내판, 표석을 설치하였으며 주변성곽 보수 홍보관 건립, 탐방로 개설 등을 통하여 용장성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남도진성은 1999년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에 의해 최초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당시 조사에서는 관아지와 문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건물 적심과 초석, 담장지, 기단 등의 다양한 유구가 확인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관아 복원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 관아를 복원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이후 2005년과 2009년 2010년에는 전남문화재연구원과 목포대학교 박물관,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에서 건물지 조사와 진도 남도진성 주변 지표조사, 선소 및 사대 시굴조사를 통해 선소유적 석축유구의 축조방법과 주변의 유물 산포지 2개소, 배수로, 우물지 등을 추가 확인하였다.

남도진성은 조선시대 수군 진영의 진지로 그 가치가 매우 크며 잔존하는 성터의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하여 1984년부터 복원공사가 추진되었으며, 현재까지 30여년간 국비 70억원 지방비 29억원 등 총 9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다.

주요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으로는 남도진성 주변 14개 유적(유물산포지 1·2, 선소, 단운교, 쌍운교, 만호비, 동헌, 객사, 내아, 남도진성, 보호수, 김해김씨효행비, 요지, 성향당)과 선소유적, 동문지, 서문지, 남문지, 다수의 건물지 등이 확인 되었다.

또한 발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유적을 바탕으로 복원을 추진하고, 성벽 붕괴부분에 대한 보수정비를 실시하고 객사, 동헌, 내아를 복원정비 하였으며, 해자와 성루 등을 복원하였다. 아울러 성곽 내부의 토지와 가옥의 매입을 추진하여 현재 성내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임시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2014년 이주가 완료되면 성곽 내부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발굴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남도진성 전경

## 성과와 기대효과

발굴조사와 복원추진으로 용장성과 남도진성 유적의 성격 규명을 위한 발굴조사와 이를 토대로 주변을 정비·복원함으로써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역사적·학술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적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용장성과 남도진성을 방문하는 관람객이 특별히 많지 않고 사대지나 선소유적 등 주변 관련 유적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여 대부분의 관람객이 용장성과 남도진성만 둘러보고 떠나는 형편이다. 유적을 중심으로 경관개선을 위한 정비 및 탐방환경 개선과 복원을 추진하고 성내 동헌, 객사, 내아 등의 복원과 생활 모습 재현 등을 통하여 탐방객 및 지역민의 교육 및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함으로써 점차 탐방객의 방문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3. 장흥 석대들 전적지 성역화 사업 추진

### 기본현황 및 사업추진배경

장흥 석대들 전적지는 2009년 국가 지정 문화재 사적 제 498호로 35,700평방미터가 사적지로 지정되었다. 당초 이 지역은 큰석대와 작은석대로 불리던 곳으로 지정 당시 큰석대는 개발행위로 인해 원형을 상실하고 있었다.



석대들 주변 전경

지정구역은 작은석대는 약 6,430평방미터가 포함되었다. 또한 동학혁명의 당시 관군으로서 농민군을 방어하다 순절한 장흥부사 박헌양을 비롯한 수성장졸 95인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사당인 영회당을 포함하여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장흥 석대들 전적지는 동학농민혁명의 최대·최후 격전지이자 당시 강진현(현 강진군 강진읍, 국도1호선)과 전라병마절도사영(현 강진군 병영면), 벽사역(현 장흥읍 원도리 방면), 장흥도호부(현 장흥읍성 남문, 장흥읍 동동리), 자울재(현 장흥읍과 용산면 경계의 고개)를 지나는 길목에 위치한 지리적 요충지이다. 이곳은 동학농민혁명군과 관군사이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전적지역이며, 석대들전투는 동학농민 혁명과정에서 전봉준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군 주력과는 별개로 이루어진 전투다. 즉 전봉준을 비롯한 지도부가 모두 체포된 이후에도 항전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적지이다. 따라서 동학농민전쟁의 전체적 현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유적지이며 반외세·반봉건을 지향하는 민족·민주운동을 지향한역사적인 장소이다.

또한 장흥 석대들 전적지는 정읍황토현전적지(사적 제295호)와 공주우금치전적지(사적 제387호), 그리고 장성황룡전적지(사적 제406호)와 더불어 동학농민전쟁 4대 전적지이다.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고 기지정된 전적지와 비교 연구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외에도 장흥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유적으로 장흥집강소 터를 비롯하여 농민군 훈련장 등 30여 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사업추진 현황

매년 장흥에서는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석대들 전투를 기념하는 추모행사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을 열고 있다.

장흥 석대들 전적지는 동학농민혁명의 4대 전적지이며, 최후·최대 격전지로서 동학농민혁명정신의 이념과 동학혁명 전개 과정을 간직하고 있는 역사의 산 교육장이다. 전라남도는 장흥군 장흥읍 남외리 일원에 국비 80억과 지방비 54억원, 총 13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년에 걸쳐 「장흥 석대들 전적지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8월 사업이 완공 될 예정이다.

주요시설로는 홍보영상관, 상징조형물, 조경 및 편의시설 등이 설치된다. 장흥 석대들 전적지는 2007년 장흥 석대들 성역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08년 사적지 지정신청을 하였으며, 2009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2009년부터 전적지 내에 위치한 토지 51필지 35,201평방미터와 기존 건축물 29동을 매입하여 철거를 진행하고, 2010년까지 전적지 내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 문화재청의 공원조성공사를 위한 기본설계승인을 받아 석대들 역사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2012년 공원조성공사를 위한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받았다. 2012년 6월 동학농민혁명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시공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였다.



2014년 3월 현재 전경



조 감 도(완 공 후)

## 사업추진 성과 및 기대효과

홍보영상관과 상징조형물, 그리고 조경 및 편의시설의 건립으로 동학농민 혁명에 대한 역사교육 체험교육장으로, 지역 주민들에게는 공공시설 및 휴식 등 다양한 여가공간의 역할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장흥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외부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자칫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지역의 역사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석대들 지역만의 특색 있는 자연환경을 부각하고 보존하는 계기가 되어 지역이미지 제고 및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 지역민들에게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킴으로써 향토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시킴과 동시에 긍지를 고취시킬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 연구자는 물론 관광객들에게 생동감 있는 역사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연도별 장흥 석대들 전적지 탐방객 수요 추정

구 분	연도별 방문객수 추정(천명)				비 고
	2014	2015	2016	2017	
장 흥	8,614	8,984	9,369	9,771	
석대들 전적지	1,050	2,500	2,700	3,500	역사유적지 방문객

## 24.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사업

###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 취지

대한민국의 제15대 대통령이었던 김대중은 2000년에 한반도와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신장, 햇볕정책을 통한 남북한의 화해·협력관계 발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생애는 민주주의·인권·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삶이었다.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불의에 항거하며 한국 현대사 격동기의 중심에서 ‘행동하는 양심’의 삶을 실천했다. 또한 자신을 탄압하고 모함했던 이들과 화해하고 용서함으로서 진정으로 용기 있는 자의 면모를 보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유년시절부터 정계에 입문하기까지 활동한 곳이 목포이며, 그의 철학과 신념은 목포에서 활동하며 태동되었다. 그의 기념관이 있는 목포 삼학도는 목포의 역사와 전설이 살아 숨 쉬고 있으며 목포시민들의 꿈과 희망이 함께하는 곳이기도 하다.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은 김대중 대통령의 생애를 통해 민주주의·인권·

평화의 의미와 가치를 전하고자 했다. 특히,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까지의 모습을 통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객관적 사실과 사료에 의거해 체험적 역사교육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 상설 및 기획전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민주주의·인권·평화’, ‘화해와 용서’로 대표되는 김대중 정신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와 민족,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일조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 배경

기념관을 통해 민주주의와 남북통일,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헌하신 故 김대중 前 대통령의 업적을 계승 발전과 한국인 최초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념하고자 했다. 또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의 대외 이미지와 목포 위상 제고와 더불어 국제적 관광명소로 개발·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념관을 건립하게 되었다.

###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의 개요 및 추진과정

기념관의 위치는 목포시 삼학로 92번길(산정동 1481번지 외 11필지, 삼학도복원화 사업지구 내)에 규모는 부지 15,600㎡, 연면적 4,677㎡(지상 2층, 높이 14.1m)로 전시동에는 4개의 전시실과 영상실, 대통령집무실, 휴게시설, 관리실, 카페테리아, 기념품샵이 있으며, 컨벤션동에는 다목적강당과 교육회의실, 세미나실 등이 있다. 사업기간은 2010년에서 2013년까지로 총 사업비 200억원(광특 100, 지방비 100)이 소요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사비 181억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9억원, 감리비 등 10억원이다.

자원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억원)

자원별	년도별	합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200	50	60	55	35
	광 특	100	30	30	30	10
지방비	도 비	40	10	15	10	5
	시 비	60	10	15	15	20

기념관의 건립은 최초 2005년 5월, 전라남도지사와 목포시장이 기념관 건립을 위한 협력을 시작으로 2006년 6월에 김대중 대통령 면담을 통해 기념관 건립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2008년 2월, 김대중대통령께서 목포를 방문하셨을 때 기념관 건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었다. 2010년 6월, 건축설계 및 전시관 제작·설치 제안 공모 작품 심사를 통해 건축은 (주)금성종합건축사, 전시분야는 (주)지엘어소시에이츠사가 맡았다. 2011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를 마치고 7월에 전남도 건설기술심의 및 계약심사,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9월 5일 건립 현장에서 착공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2012년 5월에는 전시자료 확보를 위해 연세대 김대중도서관과 업무협약체결을 맺고, 8월에는 전시관 전시연출 작업 착수한 이래, 수차례의 PPT 보고를 통해 전시관 연출을 확정지었다.

2013년 4월에는 (재)『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관리·운영 조례가 제정되었고, 4월에는 기념관 건축이 준공되었다. 5월에는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총회 및 이사회가 개최된 이후, 6월 15일 2000년 6·15 남북공동성명일에 맞춰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이 역사적인 개관을 하게 되었다. 이어 7월에는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의 재단법인이 설립 등기를 마쳤고, 9월에는 기념관장을 비롯한 재단의 직원이 채용되었다.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착공식



기념관 건축 현장 장면

### 기념관의 전시실 연출

기념관 전시동 1층에는 영상관, 안내데스크, 카페테리아, 기념품샵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면 벽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 중앙벽면에 위치하며 김대중 대통령께서 생전에 사용했던 승용차가 전시되어 있다. 영상관은 김대중 대통령의 일생에 대한 영상을 관람할 수 있고, 안내데스크에서는 입장권 매표 및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에 대한 관람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카페테리아에서는 관람객들이 편히 쉬면서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기며 기념관 전면에 펼쳐진 목포 앞바다를 감상 할 수 있고, 기념품샵 코너에는 다양한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다.

2층 주전시실 구성을 살펴보면, 제1전시실에 ‘한국인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란 주제로 2000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노벨 평화상 시상 모습을 현장감 있는 영상으로 살펴보고, 당시 해외 언론들의 보도 내용과 국내·외 환영 모습을 소개한다.

2000년 12월 노벨평화상 시상식이 거행된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을 재현하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수상연설을 영상으로 재구성해 현장감과 생동감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당시 시상식장과 만찬행사 때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호 여사가 실제 입었던 의상을 전시하고 있다. 이는 영광과 무한한 책임의 시작으로 노벨평화상 시상식과 관련된 사진 및 수상연설, 청와대 발표 수상소감 등을 전시하고 있다.

제2전시실의 주제는 ‘김대중과 노벨상’으로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 수상 사유를 알아보는 코너로서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그의 업적을 소개했다. 더불어 노벨상의 탄생과정과 역대 수상자들의 에피소드와 선정과정에 대해 알아볼 수 있게 꾸몄다.

노벨 위원회에서 발표한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사유와 연관된 김대중 대통령의 주요 업적을 미디어테이블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연출해



제1전시실 대통령내외부 밀랍인형



제2전시실 전경



평화와 화해를 위한 그의 노력을 엿볼 수 있게 했다. 또 노벨상이 제정된 배경과 역사,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노벨상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을 전시하여 세계 최고 권위의 상 ‘노벨상’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하고 있다.

제3전시실에는 김대중의 출생에서부터 정치 입문과정,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겪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관련 사료와 영상을 통해 소개했다. 더불어 그와 함께했던 동행자들을 소개하여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았던 그의 위상을 알아보는 코너로 김대중대통령이 민주화를 위해 걸어온 길을 전반적으로 소개했다.



제 3전시실 전경



제 4전시실 전경

제4전시실은 국민의 정부 시절 김대중대통령께서 남긴 정치적 유산을 살펴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기틀이 마련된 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전시실로 국민의 정부 5년의 성과를 총 8가지 영역(국민의 정부 출범, 민주주의와 인권국가의 기초 마련, IMF외환위기 극복, 선진복지국가의 기반 마련, 지식 정보 강국으로의 도약, 문화예술국가의 기반 마련, 남북화해와 햇볕정책, 자주적인 국제 외교)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사진, 사료, 영상을 통해 전시하고 있다.

마지막 코너인 대통령 집무실에서는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재현하고 있으며 체험형 미디어테이블을 통해 관람객이 직접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김대중 연보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출생에서부터 서거까지의 중요한 사건들을 연대기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를 전시하고 있다.

컨벤션동의 1층 로비는 기획전시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2층 다목적 강당과 세미나실은 기념관의 교육프로그램 일반시민들의 워크숍, 연구발표회 등 다양한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관이 가능한 공간이다.





대통령 집무실 전경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외부전경

### 개관 원년 추진사업 및 성과

2013. 11. 12~12. 13까지 기념관 컨벤션동 다목적강당에서 김대중 리더십 배우기 아카데미 강좌가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 강좌에는 박승 등 5개 강좌 운영에 총 750명이 참가하였고, 12월 5일에는 서울 김대중도서관과 63빌딩에서 제3회 김대중평화학술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는데, 약 1,200명이 참석하였다.

#### 기념관 관람인원 현황

연도	기간	운영일수	관람객수	일일평균
2013	2013. 6. 15~12.31	172일	140,522명	817명
2014	2014. 1. 1~3. 23	71일	21,277명	300명

※ 개관기념 8월말까지 무료 운영, 9월부터 유료 전환

이와 함께 12월 13일부터는 컨벤션동 1층 기획전시실에서 노벨평화상 수상기념 기획사진전을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라는 주제로 대통령 일상의 친근한 이미지 사진 94점을 선별하여 전시하였다. 12월 5일에는 전라남도로부터 제1종 전문 박물관으로 등록이 되어 기부금품, 지정기탁금, 전시사료 기증 등 수용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2014년의 주요사업은 우선 김대중대통령 정신계승 기념사업으로 ‘평화의길’ 마라톤 대회(6월)와 서거 5주기 추모문화행사(8월), 기획사진전(8월, 12월), 제4회 국제평화학술회의(12월)가 예정되어 있다. 목적지향형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김대중 리더십 아카데미(5월~11월),

목포평화백일장(6월)과 목포평화비전스쿨 (5월~6월)이 운영된다.

### 기념관의 향후 운영방향

대통령님 유품 및 사진 등 자료 기증운동 전개와 함께 기념사업 자력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의 성공적인 개관에 이어 운영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국내 유일의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의 성공적인 운영과 지역민에게 다양한 교육문화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가족단위,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체류형·체험형 관광객이 증가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 25. 강강술래 전국화·세계화 추진

### 강강술래의 가치

강강술래는 노래(song), 무용(dance), 음악(music)이 삼위일체의 형태로 이루어진 원시종합예술로서 한국 특유의 ballad dance이다. 전통적으로 강강술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시절기인 설, 대보름, 단오, 백중, 추석, 9월 중구 밤에 연행되었다. 춤을 추는 여성들 중에서 노래 잘하는 한 사람이 선소리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뒷소리를 받는 선후창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또 노랫소리에 맞춰 많은 여성들이 손에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춤을 춘다.



흥겨운 놀이인 동시에 의례적 성격이 강한 세시풍습이기도 한 강강술래는 1966년 2월 15일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었다. 이는 진도군

강강술래와 해남군 우수영 강강술래가 결합된 것이다.

또한 2009년 9월 30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4차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부간 위원회에서 강강술래의 보편성 및 중요성을 인정받아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 결정되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란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 의거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표목록 또는 긴급목록에 각국의 무형유산을 등재하는 제도를 말한다.

### 추진배경 및 경위

전라남도는 강진, 해남, 진도, 완도, 무안, 신안 등 전남 서남해안에서 전래되고 있고, 중요 무형자산인 강강술래를 지역 대표 민속행사는 물론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2년 명량대첩축제기간 중 해남과 진도가 격년으로 주관하여 진행해 온 “전국강강술래경연대회”를 “온 겨레 강강술래 한마당”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여 확대·발전시켰다. 같은 해 5월 4일 강강술래 보존회 및 향토사학자 등이 참여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사업 추진방향 설정, 보전 및 참여프로그램 등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추가경정 예산으로 100백만원을 확보하였다.

#### 기존행사현황(시군대회)

- 「명량대첩축제」 강강술래 경연대회
  - 매년 10월(축제기간)/ 해남우수영, 진도녹진광장/ 해남·진도(격년 주관)
- 유네스코세계무형문화유산 「전국강강술래 경연대회」
  - 매년 10월/ 진도향토문화회관 야외공연장/ 진도군 주관

또한 전라남도 문화산업진흥원은 전라남도의 지원(사업비 100백만원) 아래 남도의 소리 및 춤 동작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생활 문화콘텐츠로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전통 강강술래 연계 국민생활댄스 홍보 및 보급·확산 지원, 교육청 연계 강강술래 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체육회 연계 지도자 인력양성 및 관련기관 보급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강강술래

문화콘텐츠 활성화 지원사업'을 2012년 6월부터 추진하였다.

### 온 겨레 강강술래 한마당

2012년에는 시연방식의 경연으로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전국의 모든 강강술래 단체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전통공연 뿐만이 아닌 청소년 국민생활댄스 시범공연 등을 실시하였다. 동시에 강강술래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 전설, 민담, 일화 등을 주제로 한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병행 개최하여 강강술래 소재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강강술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

이어 2013년에는 전통 강강술래를 비롯해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창작 강강술래 경연을 추가하여 지역별·연령별 다양성 확대를 도모했다. 특히 전년도 행사 내용 중 참여율과 실용성이 떨어진 강강술래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폐지한 반면 강강술래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 현장 참여가 가능한 사생대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현장중심의 다양한 행사구성과 확대된 행사규모를 토대로 지역대표 민속행사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



온겨레 강강술래 참가팀 경연장면



참가팀과 관람객 시연장면

### 문화콘텐츠(강강술래) 활성화 지원

전라남도 문화산업진흥원은 2012년 6월부터 문화콘텐츠(강강술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2012년 9월 11일 진도군과 강강술래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강강술래 국민생활 댄스'를 개발하여 진도문화예술제(2012.11.1.~11.5.) 및 2012년 도지사컵 모터스포츠 대회(2012.11.17.~11.18.) 등에서의 시범공연 실시, CD 및 교재, 온라인(학습콘텐츠 제휴 : 2013년 2월,

초등교사용 교육자료 활용 프로그램 I-Scream)을 통한 보급 등 전방위적으로 활성화 경로를 모색하였다. 전라남도 교육연수원 및 전라남도 교육청 교육 중강습회 운영 또는 지원을 실시하고 ‘강강술래 국민생활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또는 홍보를 진행하였다.

또한 2013년 3월 18일 강강술래 공식 홈페이지(<http://www.ggsl.or.kr>)를 구축하고 같은 해 8월 26일 강강술래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jcia\\_ggsl](http://blog.naver.com/jcia_ggsl))를 개설하여 강강술래 정보에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13. 7. 29. ~ 12. 20. 나코디자인그룹(주)와 협약을 체결, 플래시 애니메이션 MV, 강강술래 응원가 및 응원안무를 제작하여 프로배구 V리그( 13. 12. 10.)에서 활용하는 등 강강술래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하였다.



강강술래 국민생활댄스 보급자료



강강술래 국민생활댄스 경연장면

## 26. 전통형태 관광유람선 건조(황포돛배, 거북선, 판옥선)

### 배경

황포돛배는 누런 포를 돛에 달고 순전히 바람의 힘으로 물자를 나르던 옛 수송선이다. 황포돛배 복원사업은 영산강 하구둑이 형성되기 이전의 뱃길을 복원함으로써 문화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토대로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했다. 또 거북선복원은 명량대첩의 역사성을 기리고 이를 관광산업과 연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순신 장군은

백의중군 후 삼도수군 통제사로 복귀하여 명량대첩에서 민관이 하나가 되어 함선의 수에서 13대 133이라는 절대 열세를 극복하고 울돌목에서 기적의 승리를 거두었다. 이순신 장군을 역사자원으로 한 승전코스를 개발하여 유람선 운항, 역사현장의 정비 및 복원하는 사업이다.

### 추진경과

황포돛배는 4척(나주 3척, 목포 1척)이 운항중이다. 나주에서 운항중인 황포돛배 3척중 2척은 2008년 5월부터 운항중이며 나주시가 직영하고 있다. 각 11인승으로 규모는 3.4톤에 길이가 12.5m, 폭이 2.5m이다. 1척당 8천만원의 건조비가 투자되었으며 운항구간은 나주 영산포 등대부터 다시면 회진까지 왕복 10km이다.

나머지 한척은 나주 왕건호인데, 2012년 9월 나주시 직영으로 운항중에 있으며, 선박 규모는 96인승, 97톤, 길이 30m, 폭 10m, 6억4천만원의 건조비가 투자되었다. 운항구간은 황포돛배와 동일하다.

목포 황포돛배는 2010년 10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으로 운항중이며, 선박규모는 49인승, 24톤, 길이 25m, 폭 5m로 건조비가 4억원 소요되었다. 운항구간은 목포시 옥암동 수변공원부터 무영대교까지 약 20km이다.

나주 황포돛배 운항 실적

(단위: 명, 천원)

년도별	승선인원			수입액	비고
	계	유료	무료		
합계	105,714	82,855	22,859	340,402	
'08.5~	7,856	1,921	5,935	6,977	5.2~9.12 무료운항
2009	24,820	20,614	4,206	77,927	양귀비 축제 개최
2010	18,192	11,751	6,441	41,208	4대강 공사
2011	22,876	19,421	3,455	65,768	
2012	18,161	16,065	2,096	70,904	'12.9. 영산포 이전
2013	13,809	13,083	726	77,618	



목포 황포돛배 운항 실적

(단위 : 명, 천원)

연도별	승선인원			수입액	비고
	계	유료	무료		
합계	16,241	15,226	1,015	44,226	
2010	179	113	66	472	2010. 10월 운항
2011	5,199	4,683	516	14,885	위탁수수료 10 백만원 징구
2012	4,703	4,507	196	12,495	운영보조금 41백만원 지원
2013	6,160	5,923	237	16,374	운영보조금 28 백만원 지원



목포 황포돛배 전경



나주 황포돛배 전경



왕건호 전경

거북선 유람선은 해남 울돌목에 1척과 여수에 1척을 건조하여 운항하고 있다. 울돌목 거북선 유람선은 368톤에, 173명이 승선할 수 있는 규모로 44억원의 건조비를 투자 2008. 10월부터 전남개발공사에서 해남 우수영에서 진도 벽파구간 왕복 15km를 1일 3회 운항하고 있다. 전남도 대표축제인 명량대첩 축제 기간중 조선수군과 왜군간의 해전재현에도시 활용되고 있다.



해남 울돌목 거북선

여수거북선 유람선은 426톤 규모로 306명이 승선 운항 될 수 있도록 44억원의 건조비를 투입하여 건조 2012. 1월부터 여수시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오동도에서 돌산대교를 거쳐 향일암 일원으로 운항하고 있다.

특히 여수엑스포 기간에만 29천여명이 이용 하는 등 흑자운영중에 있으며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는 야간운항도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여수지역에서는 엑스포 개최이후 국내외 홍보효과로 인하여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람선 이용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 운항실적

- '13년 운항실적 : 인원/125,991명, 승선료수입/ 930백만원
- 엑스포 기간 : 인원/29,092명, 승선료수입/ 346백만원



여수 거북선

관옥선은 해남울돌목과 진도에서 2척을 2010. 12월 건조하여 평시에는 거북선, 안택선과 함께 거북선단을 구성 전시용으로 노젓기, 활쏘기 체험, 조선수군 복식·무기 전시장 및 포토존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명량축제 등 행사 및 거북선 유람선 운항 불가시에는 유람선으로 활용되고 있다



판옥선



판옥선 체험장

### 추진성과

전라남도는 다른지역에 비해 해양관광자원 개발의 잠재력과 가치성이 매우 높고 관광의 공간적 대상이 해양관광으로 변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신해양시대와 맞물려 해양관광 상품 콘텐츠 개발은 필수불가결하다.



거북선 유람선 사업은 이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양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한바 초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해양관광객이 2006년 대비 2013년 까지 59.4%가 증가했다. 특히, 여수거북선의 경우 2012년 여수 박람회 기간 동안 29천여명이 이용하여 명실상부한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 27.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 추진배경

2012년 여수에서 개최될 국제적 메가이벤트인 세계박람회를 맞아 8백여만 방문객을 위한 숙박 및 관광휴양시설의 공급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여수시 일원에서 추진 중인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시설들과 함께 국제적인 수준의 관광휴양시설을 개발, 공급하여 국내외 방문객들의 만족스런 방문경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 수행이 요구되었다.

전라남도는 지역내 우수한 자연 풍광과 인문자원을 살린 체계적인 관광개발을 통해 지역의 사회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여수시 역시 관광개발을 통해 지역내 수요 및 수도권,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관광거점으로서의 발돋움을 꾀하고 있어 이를 위한 기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경도는 우수한 접근성과 온화한 기후, 아름다운 자연 환경 등 해양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이 뛰어난 지역이다. 이러한 잠재력을 십분 살린 관광휴양지 조성방안 도출이 요구되었다. 경도의 수려한 자연환경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한편, 장기적인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용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고, 특히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 추진경위 및 시설현황

사업추진을 위해 2007년 9월 경도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였다. 그리고 전라남도, 여수시, 전남개발공사가 투자협약(2007.11. 9)을 체결하였다. 이후 타당성조사(2007.11.22) 등을 거쳤다. 그리고 여수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2008.12.11), 여수세계박람회지원시설 구역 지정 신청(국토해양부, 2009. 1. 7),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환경부, 2009. 2.13)했다. 많은 과정을 거쳐 마침내 2010년 6월 15일 박람회지원시설(관광단지) 공사가 착공되었다. 그리고 2013년 3월 여수세계박람회지원시설사업(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사업계획(변경) 승인(전남도 고시 제2013 - 58호) 되었다. 경도해양관광지는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6까지 총사업비 4,292억원이 투입되며, 면적은 2,165,944㎡이다.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업내용

- 1단계('07 ~ '14) : 콘도 100실, 골프장 27홀, 해양친수공간, 기반시설
- 2단계('14 ~ '15) : 골프빌라 100실
- 3단계('15 ~ '16) : 골프빌라 100실
- 민자시설 : 호텔·콘도, 기업연수원, 상업시설
- 골프장현황 : 면적-1,640,629㎡, 27홀, 9,706m, 108par
- 콘도현황 : 대지면적-32,561㎡, 연면적-15,021㎡, 객실, 식당, 연회장, 수영장 등



콘도





골프코스



클럽하우스

### 파급효과

여수박람회 방문객들의 숙박 및 관광휴양 수요에 부응, 여수세계엑스포의 성공 개최에 기여는 물론 2013순천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하는데에도 기여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9,145억원의 생산유발효과, 약 5,416명의 고용유발효과 그리고 약 327억원(대중제 기준)의 개발이익 및 지방세수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증대 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단위 : 백만원)

생산유발효과	건설소요비용	생산유발계수	생산유발효과
합 계	420,060		914,467
토목부문(조성)	218,816	2.245675	491,390
건축부문(조성후)	201,244	2.102310	423,077

\* 한국은행에서 2010년 8월 발표한 「2008년 산업연관표」의 건설부문 생산유발계수를 적용

(단위 : 백만원)

생산유발효과	건설소요비용	생산유발계수	생산유발효과
합 계	420,060		5,416
토목부문(조성)	218,816	11.8818/십억원	2,600
건축부문(조성후)	201,244	13.9943/십억원	2,816

\* 한국은행에서 2010년 8월 발표한 「2008년 산업연관표」의 건설부문 고용유발계수를 적용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던 전남 남해안권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에 대해 광역적 이미지가 개선되었다. 전남 남해안권이 지닌 풍부한 인문·자연환경자원에 세계적 수준의 관광휴양시설을 제공하여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새로운 관광거점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경도 지역주민들의 생활공간을 재개발하여, 교통 및 정주공간을 개선하고 관광객들의 유입으로 활력 있는 생활공간을 창출하였다.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더 풍요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국내 유일의 섬골프장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관광휴양시설 개발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양한 관광 체험을 제공하였다. 여수시와 광양만권 인근 지역민들에게는 상시로 이용 가능한 관광휴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했다.

골프장 등 리조트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팸투어 초청행사, 여행사를 통한 모객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여 전남만의 새로운 관광 루트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28. 남도소리 올림터 공연장 건립

### 추진배경

1986년 8월 9일 창단한 전남도립국악단(이하 도립국악단)은 대한민국 대표적인 공연예술단체 가운데 하나로, 남도의 전통 가(歌)·무(舞)·악(樂)을 계승 발전시켜 오고 있다. 그동안 국내 주요 도시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을 순회하면서 지금까지 2,000여회의 공연을 통해 전라남도의 전통 예술을 널리 알리는 문화 사절단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전남도청이 남악신도시로 이전된 2005년 이후 새로운 공연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매주 토요일 상설공연을 시작하여 지역민은 물론 우리지역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는 등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도립국악단 연습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전남 화순의 舊(구) 화순 보건소는 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토요공연’이 진행되는 목포로 인원·장비를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도립국악단의 전용 연습 공간 확보와 도청소재지인 남악신도시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도립공연장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도립국악단 연습실 현황



도립국악단 토요일공연 장면

### 추진경위

2005년 도청 이전과 함께 본격적인 남악신도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먼저, 도민의 책 읽는 분위기 확산과 선진 도민의식 고취를 위한 도립도서관 건립이 구체화 되었고 2009년 도립도서관 건립사업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도립도서관을 중심으로 공연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이 집적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2009년 1월 대상 부지를 업무용지에서 문화시설용지로 변경하였다.

2010년 3월 8일 도립국악단 전용공간으로 사용하면서 국·내외 유명 공연 유치, 유료 대관 등 다각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문화용지 일원에 부지 6,550㎡, 연면적 3,500㎡ 지상 3층 규모로 중·소 공연장과 연습실을 갖춘 남도소리 올림티 공연장 건립계획을 수립하였다.

2010년 8월 사업의 타당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인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의뢰하였고, 10월 최종 승인 통보를 받았으며, 12월 제256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다.

또한 2011년 광역발전특별회계 도 자율편성 사업으로 지원이 확정되어 오는 2014년까지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총 231억원을 투입하여 건립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였다.

2012년 3월 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건축 관련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개발공사와 '남도소리 올림티 공연장 건립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2년 6월 기본적인 공간구성계획을 마련하였다. 2012년 6월부터 8월까지 설계공모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고 대학교수, 전라남도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다.

남도소리 올림티 공연장은 외형적으로는 전라남도의 전통 건축양식을 계승한 남향배치의 한옥형태로 조성하되 내부적으로는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 공연단과 관람객의 편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통한 에너지 절약과 사철잔디 식재를 통해 사계절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남악시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추진상황

2013년 6월 건축공사를 수행할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특히, 2013년 7월 16일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명현관 전라남도의회 경관위원장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립사업 첫 삼을 뜨는 기공식을 개최하고 남도소리 올림터를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공연예술의 명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2013년 7월 지반강화를 위한 파일공사를 시작으로 9월 흙막이 공사, 11월 터파기 공사, 12월에는 지하층 기초공사가 마무리 되었다. 2014년 1월에는 무대 바닥과 지하층 벽체 공사가 진행되었고, 2월에는 지상 1층 바닥공사가, 3월에는 지상 1층 벽체 공사가 추진되는 등 공사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14년 5월까지 건물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무대기계·음향·조명시설 설치와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의 공정을 거쳐 오는 12월 건립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추진 연월	내용	비고
2010. 3.	기본계획 수립	
2010. 12.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제256회 정례회
2012. 3.	건립공사 위·수탁 협약 체결	전남도↔전남개발공사
2012. 8.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13. 4.	실시설계 완료	
2013. 6.	공사 착공	7. 16. 기공식
2013. 12.	기초공사 완료	
2014. 5.	골조공사 완료	
2014. 12.	준공	

\* 한국은행에서 2010년 8월 발표한 「2008년 산업연관표」의 건설부문 고용유발계수를 적용

## 기대효과-전라남도 문화예술 중심지 도약

전라남도 행정중심지인 남악신도시에 주민들의 문화수요에 부응함은 물론,



도립국악단 토요공연, 국내외 유명 기획공연을 유치하는 등 전라남도 공연예술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12년 개관한 도립도서관과 건립 예정인 도립미술관으로 이어지는 복합 문화클러스터 구축으로 전라남도 문화예술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도립국악단 전용 연습장 마련 등 공연의 질 향상

도립국악단 전용 연습장이 마련됨으로써 단원들의 기량과 공연의 수준이 더욱 향상되고, 상설 공연장에서 매주 토요공연과 각종 기획·창작 공연을 개최함으로써 남도 국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 건립 개요 〉

- 위 치 :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210(도립도서관 옆)
- 사업기간 : 2012~2014(3년)
- 규 모 : 부지 6,550㎡/연면적 5,193㎡(지상3층)
- 주요시설 : 공연장, 연습실, 장비보관실, 사무실, 자료실, 휴게실 등
- 사 업 비 : 231억원(국비 72, 도비 159)



조 감 도



## 29. 전라남도체육회관 신축 이전

전라남도체육회관은 지난 1982년 전라남도 체육진흥을 위하여 문화관광부 보조금인 8억원의 국비를 포함하여 시·군비 10억원, 성금 3억원 등 총 21억원을 투입해 대지 3,870㎡, 연건평 6,106㎡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에 건립·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2005년 전남도청의 남악 이전으로 도청 소재지에 체육회관을 신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신축 이전에 따른 부담스러운 비용과 구동 사옥 매각 등 신축에 따른 준비과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2007년 12월 9일부터 목포시 상동 소재 정인빌딩에서 일부 사무실을 임대하여 운영되었다.

무엇보다 전남체육의 총본산인 전라남도체육회의 위상에 맞지 않는 267㎡의 작은 규모에 보증금 5,000만원, 월 임대료 200만원의 초라한 ‘더부살이의 설움’은 전남체육인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 전남체육 경쟁력의 하락

더부살이의 설움을 겪는 동안 전남체육은 전국 17개 시·도체육의 경쟁력 바로미터로 통하고 있는 전국체육대회에서 내리막길 성적표를 그려내고 있었다. 2003년과 2004년, 2년 연속 종합 7위로 전국 중·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던 전남체육은 2005년 9위, 2006년 8위, 2007년 12위로 내리막길을 걸어야 했다.

31년 만에 전남에서 개최된 2008년 제89회 전국체육대회는 개최지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종합 3위를 차지하였으나, 2009년 이후 또다시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고 급기야 2013년 제94회 전국체전에서 종합 13위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되었다.

계속적인 성적 추락과 함께 체육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도청 소재지에 체육회관을 신축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때마침 구동 소재 전남체육회관이 2008년 10월 광주광역시로 매각(41억 5,000만원)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전남체육회관을 건립하여 체육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남체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따라서 도와 전남체육회는 2009년 남악신도시에 위치한 현 부지를 전남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전라남도체육회관의 신축을 본격화하기에 이르렀다.

### 전라남도체육회관 신축

전라남도는 2011년 11월 8일,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2009번지에 부지면적 3,151㎡, 연면적 5,630㎡의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전라남도체육회관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신축에 들어갔다. 전남도청 남악시대의 서막이 열린지 정확히 6년 만에 이루어진 전남체육사의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소요사업비는 총 135억원으로, 부지매입비 10억원, 설계·감리용역비 13억원, 시설비 112억원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총 사업비 135억원의 재원은 광특 38억원, 도비 15억원, 복권기금 50억원, 지방채 32억원 등이 총망라된 것으로서, 이중 전라남도는 도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광특자금 38억원과, 복권기금 50억원 등 총 88억원의 시설 재원을 외부로부터 확보함으로써 전라남도는 체육회관의 효율적인 건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마침내 2013년 1월 24일 준공식을 갖고, 전라남도체육회는 5년여의 더부살이 설움을 끝내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전라남도체육회관은 도내 각종 체육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남악신도시 입주기관·단체 및 주민의 스포츠 활동기회 제공 및 도민의 문화·여가 공간으로 활용됨과 동시에 남악신도시 입주 유인책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 전라남도체육회관 건립 현황

- 위 치 : 무안군 삼향읍 오룡1길 41
- 사업규모 : 부지 3,151㎡, 지하 1층, 지상 5층(연면적 5,630㎡)
- 시설용도 : 체육회(일반, 장애인) 사무실, 다목적강당, 회의실 등
- 사 업 비 : 135억원(부지매입10, 설계·감리용역13, 시설비112억원)
- 사업기간 : 2009. 3 ~ 2012. 12
- 발 주 자 : 전남도청(시공 남도건설, 감리 휴다임건축사사무소)

## 전라남도체육회관의 특징

전라남도체육회관은 전라남도체육회와 전남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을 비롯하여 다목적체육관, 스포츠과학센터, 스포츠 전시관, 가맹경기단체 사무실, 체력단련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 중 다목적체육관과 스포츠과학센터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도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체육회를 비롯해 가맹경기단체가 함께 생활하게 되어 유기적인 정보교환도 가능하다.

전남스포츠과학센터에는 건강진단 장비인 체성분 측정기, 혈압 맥박 측정기와 함께 체력측정 장비인 운동부하검사기, 등속성 근관절기능검사기, 전신반응 측정기 등 총 21종, 4억여원의 장비가 들어차 있다. 이 장비들은 전문선수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활용됨으로써 전남의 프로 및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선진화된 장비로 체계적인 측정과 처방 지원, 우수선수 발굴 및 보호육성에 힘을 보태주고, 지역 주민들에게 선진화된 장비로 운동 처방을 지원하고 있다.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운동처방 보급으로 전문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선수보호 예방, 지역주민들에게 꾸준한 측정과 운동처방으로 건강한 삶 유지에 절대적인 도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체육 역사, 전남체육 역사, 전남체육 팜방울, 영상관 등 4개 테마로 이루어진 전라남도 스포츠 전시관에는 전남 출신 역대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메달과 유니폼, 착용 장비들이 전시돼 있다. 1932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인 고 손기정 옹의 청동투구를 비롯하여 '아시아의 물개' 고 조오련씨의 각종 유품, 그리고 전남체육이 획득한 각종 트로피들이 가지런히 진열장을 채우고 있다.

이 외에도 영상관에서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2008년 전남이 개최한 제89회 전국체육대회 등의 영상물을 볼수 있으며, 다목적체육관은 현장 스포츠를 만끽할 수 있다.

특히 전라남도체육회관내의 다목적체육관이 본격 활용됨에 따라 도민들의 여가생활을 통한 건강 증진 및 체력향상 기여와 스포츠의 저변 확대로 여가문화 선도 등 도민체육 활동 강화를 비롯하여 도민과의 스킨십 강화를 통한 전라남도체육회의 인지도 제고, 지방체육 활성화 등의 부대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체육회관은 태양광 및 지열시스템 등 최첨단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절약형 건물로 신축되었다. 다목적체육관 냉·난방용으로 220kw의 지열시스템과 전등, 전열용의 태양광시스템(42kw) 등 첨단화된 시설도 자랑거리로 꼽힌다. 이는 건축비 대비 10.43%를 적용하여 공공시설 5%, 도 조례 7%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 기준치를 상회한 것으로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에너지절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라남도체육회관 신축 이전 기대효과

지난 2012년 1월 24일 준공된 전라남도체육회관은 전남 체육인의 보급자리로서, 전남체육 진흥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 체육회를 비롯한 장애인체육회 등 가맹경기단체가 함께 있어 행정능률 향상은 물론 유기적인 정보 교환은 물론, 다목적 강당 및 스포츠과학센터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도민들의 건강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해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밖에도 전남체육회관은 스포츠산업을 지역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승마, 요트 등 다양한 레저·스포츠대회를 지역에 유치하여 이를 관광프로그램과 연계시켜 도민의 소득을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라남도과 도체육회는 체육회관 신축 이전을 계기로 각종 전국규모대회 개최 및 동·하계 전지훈련팀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